

# 濟州島 處女堂 本풀이 研究

이를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高 光 敏

指導教授 玄 容 駿

1982學年度

# 高光敏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教育大學院

主 審 金 榮 敦 

副 審 玄 吉 亨 

副 審 玄 容 駿 

1982學年度

# 차 례

I. 序 論 .....	2
II. 처녀당 본풀이 構成과 形成要因 .....	6
1. 처녀당 본풀이 구성 .....	6
1) <불랫낭할망당> 본풀이 .....	10
2) <현씨일월당> 본풀이 .....	13
3) <토산9드랫당> 본풀이 .....	17
4) <호근이마루9드랫당> 본풀이 .....	28
5) <마느락당> 본풀이 .....	32
6) <마라도처녀당> 본풀이 .....	34
2. 처녀당 본풀이들의 形成要因 .....	39
1) 倭侵 .....	40
2) 国馬進上 .....	42
3) 身分的 葛藤 .....	45
4) 人身供儀 .....	48
III. 처녀당 祭儀와 意味 .....	51
1. 처녀堂祭의 類型的 特徵 .....	51
2. 맺힘과 품의 形象化 .....	56
V. 結 論 .....	62
< 参考論著 > .....	65
< 英文抄錄 > .....	68
< 附 錄 > .....	70

## I. 序 論

濟州島 巫俗에는 마을 공동으로, 또는 일부 집단에서 모셔지는 神堂들이 많다.<sup>1)</sup> 많기 때문에 이조 시대에는 유교숭상 정책으로, 일제 36년 동안에는 그들의 神壇만이 숭배되어야 한다는 구실로, 해방 후에는 무조건 미신 타파의 명분으로 파괴당해 왔지만, 아직도 堂은, 그 堂을 信仰하는 신앙민들과 짝게 밀착되어 살아 있는 民間信仰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의 경우에는 堂이 다섯개씩이나 모셔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마을 안에서도 각 堂들마다 신앙되는 영역이나 機能<sup>2)</sup>이 다를 뿐 아니라, 형태와<sup>3)</sup> ‘본풀이’도 다르다.

본풀이란 神의 근본을 밝혀주는 신의 내력에 대한 이야기, 곧 하나의 神話<sup>4)</sup>로, 당본풀이의 경우는 神의 原籍, 탄생 이후의 來歷과 일정한 지역에서 봉제되는 堂神으로 좌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서술되며, 그 속에는 神의 성격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 堂神들의 성격은 크게 祖靈的 性格, 生業守護神的 性格, 產育神·治病神的 性格, 災殃神的 性格, 土地神的 性格 등으로 나뉘 볼 수 있는데,<sup>5)</sup> 그 중 祖靈的 性格의 堂神들 중에는 非命에 죽어간 처녀의 怨靈을 堂神으로 모시고 있는 경우가 있다.

注 1) 玄容駿 교수님에 따르면 300 개 가까이 된다고 했고, 秦聖麒 선생님에 의하면 251 개로 조사되었다.

○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新丘文化社, 1980), P. 863 참조.

○ 秦聖麒; 「南國의 巫歌」(민속문화연구소, 1968), P.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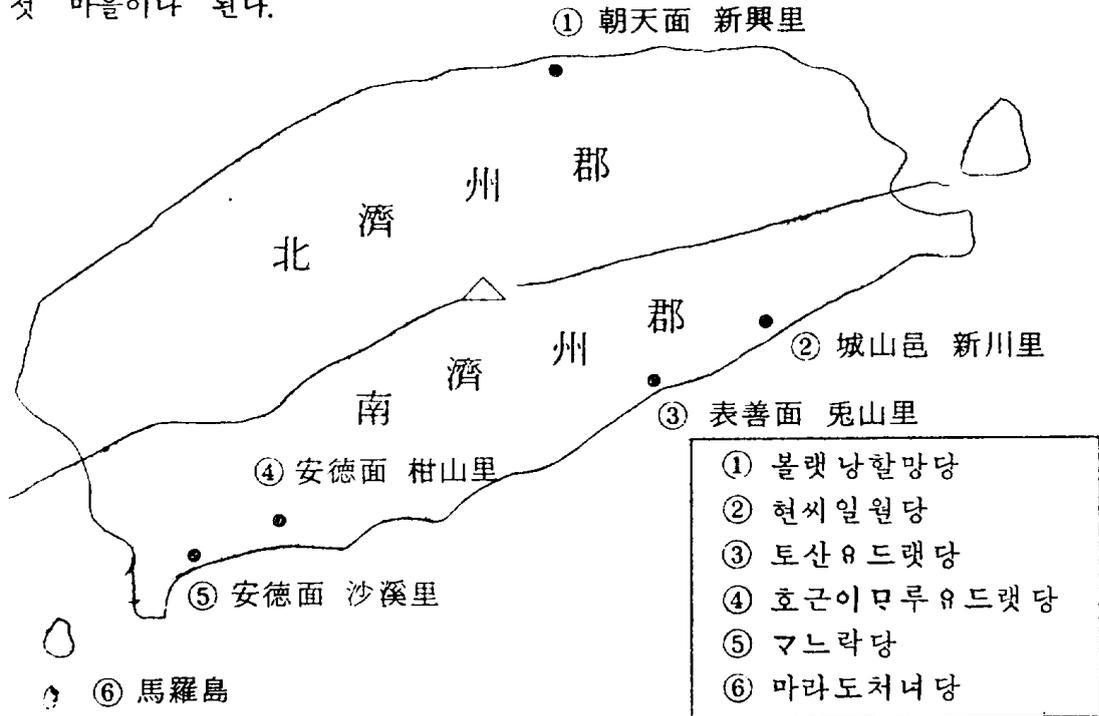
2) 한 마을 안에는 生死·戶籍 등을 차지한 本郷堂, 生業 등을 수호해주는 堂, 病을 고쳐주는 堂 등이 있어, 堂들마다 그 기능을 달리 한다.

3) 堂의 형태는, ① 神木型, ② 神木·堂字型, ③ 窟型, ④ 窟·神木型, ⑤ 石垣型, ⑥ 기타로 분류된다. 玄容駿; 同책, PP. 864 ~ 868 참조.

4) 당본풀이가 하나의 神話일 수 있는 것은, 한 마을에 좌정해 있는 神의 來歷譚인 본풀이가 다른 마을에서는 하나의 전설일 수 있어도 堂을 신앙하는 그 마을에서는 신성한 것으로 생각되는 집단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神話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張德順; 「說話文學概說」(三友社, 1974), P. 44 참조.

5) 玄容駿; “濟州島 巫信의 形成.” 『耽羅文化』 창간호(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2), PP. 9 ~ 17 참조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녀의 怨靈을 堂神으로 모시는 마을은 여섯 마을이나 된다.



이들 당본풀이에 의하면, 한결같이 처녀인 나이에 非命에 죽은 처녀의 원령을 堂神으로 모시고 있어, 이들의 堂을 <처녀당>으로 명명하고, 연구의 범위를 이에 한정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제주도 神堂에 관한 연구는 몇 분의 선학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sup>6)</sup> <처녀당>에 관한 심층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注 6) 金和經 (1981) ; “西歸浦 本郷堂 본풀이의 構造分析”, 秦聖麒 (1964) ; “堂神話의 思想的 背景”, (1970) “제주도 神堂과 堂神”, (1972) “本郷堂의 信仰과 堂神의 類型”, (1964) 「南國의 神話」, 張壽根 (1960) ; “濟州島 巫歌”, 玄吉彦 (1981) ; 「제주도의 장수실화」, 玄容駿 (1961) ; “濟州 堂神話考 一松堂系神의 神話를 中心으로—”, (1963) “巫俗神話 본풀이의 形成”, (1963) “본풀이의 形成과 內容”, (1964) “堂神話의 起源과 成長 一濟州島 堂神話考(1)—”, (1964) “堂神話의 Motif 와 基本形式 一濟州島 堂神話考(2)—”, (1964) “堂神話의 內容構成과 背景民 信仰 一濟州島 堂神話考(3)—”, (1964) “堂子의 儒式化와 三姓神話 一濟州島 堂神話考의 一端—”, (1982) “濟州島 巫神의 形成”.

처녀당 본풀이가 하나의 神話라면, 지금까지 신화의 연구 방법은 歷史・地理的 方法, 比較方法, 人類學的・機能主義的 方法, 文化投影的 方法 등으로 집약되어 왔으나,<sup>7)</sup> 여러 방법들 중에 한 방법이 적용되면, 관련되는 다른 방법이 협력을 기하게 되면서 관련성이 없는 다른 방법이 누락됨은 불가피한 사실이다.

무속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구전으로 전해지며 口演되는 巫歌에는 일정한 이야기의 흐름이 있기에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필자의 연구 관점은,

첫째, <처녀당>의 본포 지역과 신앙의 양상을 현장 그대로 서술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抽出하고 싶다. 당본풀이가 문헌에 정착한 문헌설화와는 달리, 민중 속에서 발생되어 살아 있는 신화로,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사람과 듣고 즐기는 사람이 서로 단나는 현장에 존재<sup>8)</sup>' 하기에, 처녀당의 모든 양상 — 본풀이・祭日・祭儀(굿)・단골 등—에서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둘째, 처녀당 본풀이의 연속된 구성을 抽出하는 문제다.

당본풀이는 일정한 사건 전개를 갖고 있기에 叙事巫歌라고 할 수 있고, 비기록의 문학이기에 전승되면서 변화하기 마련이다. 堂을 최초로 설연한 심방에서부터 대를 잇는 다음 심방에게로 전해지면서 변하기도 하고, 또 같은 제보자가 歌唱할 경우라도 人工條件에서 채록된 것과 自然條件의 것이 다르기 마련이다.<sup>9)</sup> 그러므로 본풀이의 완벽한 구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완결된 작은 사건'인 話素<sup>10)</sup>

注 7) Alan Dundes ; "Ways of Studying Folklore", (American Folklore, T.P.Coffin, 1968), PP.45 ~ 50.

8) 趙東一 ; 「口碑文學의 世界」(새문사, 1980), P. 51.

9) 趙東一 ; 「叙事民謠研究」(啓明大學出版部, 1970), P.25 참조.

10) Thompson, Stith: 'The Folktale' (Holt and Winston, N.Y. 1946) PP.415 - 416

" A motif is the smallest element in a tale having a power to persist in tradition. In order to have this power it must have something unusual and striking about it ... "

( motif )를 여러 異本들을 상대로 再構成되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처녀당 본풀이만이 갖고 있는 공통구성도 추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처녀당 본풀이 화소들을 일련의 전개과정으로 나열하여 각 본풀이마다 갖고 있는 구성을 밝혀내고, 이것을 토대로 여러 처녀당 본풀이만이 갖고 있는 공통구성이 밝혀질 때, 堂神의 一生史가 나타나게 됨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 堂神의 삶과 그 당을 신앙하는 신앙민들의 삶에서, 堂神이나 신앙민들이 공동으로 처했던 상황 관계를 통하여 처녀당 본풀이 형성의 요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당본풀이가 신앙민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 속에서 성장해 온 것이라면, 堂神과 그 신앙민과의 관계는 밀접하다. 그 관계를 중심으로 처녀당 본풀이 형성의 요인을 밝혀보는 것은, 제주도 당본풀이의 발생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시도에 끝나 버릴 우려도 있으나, 처녀당 본풀이가 살아 있는 民間信仰이라면, 처녀당 본풀이 형성의 요인을 말하는 데 있어서 신앙민과의 관계를 무시해 버릴 수만은 없다.

넷째, 당본풀이는 祭儀(굿)에서 발생하여, 제의 속에 존재하게 될 때, 모든 기능이 살아난다. 제의에서 떠난 본풀이는 하나의 전설이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풀이와 제의와의 관계는 무시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제의 과정에서 形象化되는 처녀당 본풀이의 의미와 본풀이에 나타난 의미가 밝혀질 때, 당본풀이에 나타나는 의미는 더욱 새롭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곧, 당본풀이 해석을 위한 제의에의 접근이다.

본고에서 다루지는 처녀당 본풀이의 자료는 여러 선학들에 의하여 밝혀진 것들과 필자가 채록한 자료들로 이뤄지는데, 여러 선학들에 의하여 채록된 자료들은 Ⅱ장에서 각 처녀당 본풀이 구성이 다뤄질 때마다 제시될 것이고, 필자에 의하여 채록된 자료는 본고 부록에 실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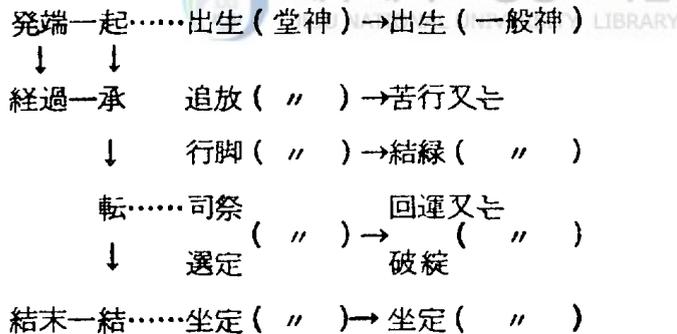
## II. 처녀당 본풀이 構成과 形成要因

### 1. 처녀당 본풀이 구성

제주도 무속에서 神의 내력을 서사적으로 진술되는 ‘본풀이’들은 하나의 神話다. 여러 본풀이들은 그 神들의 성격에 따라 일반본풀이와 당본풀이, 그리고 조상본풀이로 나뉜다.

일반본풀이는 일반적인 自然事象이나 人文事象을 차지하고 있는 신들의 이야기요, 당본풀이란 마을 단위로 모셔지는 堂神들의 來歷譚이며, 조상본풀이란 한 집안, 또는 氏族에서만 모셔지는 神에 대한 이야기다. 이 본풀이들은 神聖한 공간(곳)에서 불리워지는 神에 관한 신성한 이야기들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신화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본풀이의 경우건 신들의 성격에 따라 내용을 달리함은 당연한 사실이다.<sup>11)</sup>

제주도 당본풀이 구성(또는 構造)에 대하여는 玄容駿님과 金和經님에 의하여 이뤄진 바 있다.<sup>12)</sup> 전자는 漢詩 구성법에 따른 古代小說과의 比較的 觀點에서 씨여진 것인데, 그 구성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注 11) ‘가짓당’의 경우에는 당본풀이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12) ·玄容駿; “「본풀이」의 形成과 內容”, 『韓國言語文學』創刊号(한국 언어문학회, 1963), P. 177.

·金和經; “西歸浦 本郷堂 本풀이의 構成分析”, 『구비문학』 5(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81), PP. 35~57.

13) 玄容駿; 앞글, P. 177.

후자는 Lévi - Strauss 의 辨証法的 構造研究 方法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로 西婦浦 本郷堂 본풀이에 나타나는 토착신과 외래신과의 대립은 생산양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신화는 이 지방의 풍속을 고정한다는 Lévi - Strauss 의 理論<sup>14)</sup> 그것이었다.

본 처녀당 본풀이 서사 전개는 현용준님의 方法論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면서도, 제주도 여러 당본풀이들의 구성이 ‘出生 - 追放・行脚 - 司祭選定 - 坐定’으로 이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전개된다. 처녀당 본풀이의 서사 전개는 반드시 처녀인 나이에 죽음을 통하여 堂神으로 모셔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 죽음의 원인과 堂神으로 모시게 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본풀이의 여러 異本들을 통하여 처녀당 본풀이 자체를 전개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口誦되는 당본풀이는 살아 있는 神話들로 可變的이기 때문이다. 같은 제보자일지라도 구성상으로는 起段에 口述되어야 할 것이 轉段에 나올 수도 있고, 承段에 나와야 할 것이 結段에도 나올 수 있을 뿐 아니라, 口演狀況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은 人工條件에서의 본풀이 사실과 自然條件에서의 그 사실이 다르고,<sup>15)</sup> 금년 堂祭에서와 내년 堂祭에서 노래할 것이 다를 수 있으며, 현재 처녀당에 司祭를 담당하던 심방이 다음 사제를 담당할 ‘매인심방’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녀당 본풀이 구성은 여러 異本들을 통하여, 그 구성을 추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필자는 같은 제보자로부터 한 달 간격으로 南濟州郡 城山邑 新川里 본향당인 <현씨일월당> 본풀이를 두 번 채록한 바 있다.<sup>16)</sup> 첫번째는 필자가 직접 제보자의 집을 방문하여 얻어진 人工條件의 것이고, 두번째는 堂에서 여러 신앙민들이 祭를 올리는 현장에서 채록한 自然條件의 것이다.

注 14) Lévi - Strauss ; 日本講演集 「構造・神話・労働」(みすず書房, 1978), 金和經의 윗글에서 再引用.

15) 본고 부록 참조.

16) 上同.

다음은 <현씨일월당> 본풀이로 한 처녀(차후에 堂神이 됨)가 봉수대에서 떨어져 죽고서는, 그 伸冤을 어떠한 방법으로 玄氏一家에 알리게 되고, 그 집안에서는 김씨 심방을 불러다가 死者의 恨을 곳으로 풀어 주면서 자신들의 病苦에서 벗어나기까지의 본풀이 화소다.

먼저 인공조건의 본풀이 화소들을 보기로 하자.

A	{ 연두알러레 ① 복을겨전	떨어지영 ② 죽어가난	
B	{ 선씨상단궐 ③ 낮인옥정질 ④	밤인금정질	
C	{ 어느누게 ⑤ 감귀 혼잔	술 혼잔광 아니주나네	
E	{ 기미년옥실덜 망명도쥬 ⑥	열나홀날 김씨선생	불러대연 ⑦ 17)

[注 : ①烟台(봉수대) 밑으로 떨어져서. ③현씨 상단궐. ④怨靈이 밤낮으로 玄氏一家에 伸冤의 뜻으로 요령소리를 울렸다는 말. ⑤어느 누구도. ⑥어느 해인가 己未年 신달 열 나홀에 죽은. ⑦김씨인 무당을 불러다가.]

각 화소의 전개를 보면, ‘현씨 처녀의 죽음(A), -玄氏一家에 怨死했음을 搖鈴소리로 알림(B), -玄氏一家에서의 무관심(C), -김씨 심방을 불러다가 곳함(E)’의 순으로 되어 있어, 그 구성상의 화소들은 불완전하다. 怨死했음을 요령소리로 알렸으나 ‘무관심(C)’ 속에서 심방을 불러다가 ‘곳(E)’을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자연조건에서 불리워진 화소들을 보기로 하자.

注 17) 上同.

A	{ 연두알러래 목을걱전	떨어지연 죽어가난애	
B	{ 발인금정질 옥정지영	나는나진냥	
D	{ 선씨상단결애 우으로역기허영 <sup>②</sup>	아기에머리메탁 <sup>①</sup>	
E	{ 알로사는더언 <sup>③</sup> 기미년 옥선덜 망명도쥬	불러주난 열나홀날 김씨선성	불러다가 <sup>18)</sup>

[注: ①(怨靈이) 玄氏一家의 한 어린애에게 憑接. ②위(입)로는 口吐하며. ③밑으로 사는 데라고.]

자연조건에서 불리워진 여러 화소들의 전개과정을 보면, ‘현씨 처녀의 죽음(A), -怨死를 요령소리고 알림(B), -玄氏一家의 한 애기에게 급병을 줌(D), -김씨 심방을 불러다가 굿합(E)’의 과정으로 이어져 인공조건의 구성보다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상적인 구성 전개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조건의 화소 B와 D 사이에 인공조건의 화소인 C가 끼게 되면, 더욱 완벽한 서사전개가 이뤄진다. 곧 怨死의 뜻을 요령소리로 알렸으나(B), 玄氏一家에서 무관심했기(C) 때문에 그 집안의 한 어린애에게 급병을 주어 伸冤의 뜻을 알린다고 할 때, ‘A-B-C-D-E’로 이어지는 완벽한 敘事展開가 된다.

이처럼 처녀당 본풀이 구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완벽한(?) 사전전개를 여러 異本들을 통하여 再構한 후, 여러 처녀당 본풀이만이 갖고 있는 공통구성도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表面部位에 나타난 수평적 구성에 지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완벽에 가까워질 것이다.

注 18) 上同.

1) <볼랫낭할망당> 본풀이

이 堂은 朝天面 新興里 동쪽 해변에 위치한 것으로 왜적들로부터 겁탈 당하여 죽은 원령을 堂神으로 모시고 있다.

<볼랫낭할망당 (또는, 박씨할망당)>의 來歷譚인 본풀이는 지금까지 모두 4편이 채록된 셈이다. 秦聖麒님에 의해서 두 편이 채록되었고, 필자도 두 편을 채록했다.<sup>19)</sup>

본풀이번호	채록자	제보자	발표지 (페이지)	비고
A	秦聖麒	강오물모친	南國의 聖歌 ( 426 )	
B	"	정주병	" (426-427)	
C	필자	김씨할머니	본고 부록	
D	"	정주병	"	

당본풀이가 일정한 기회 [祭日]에, 일정한 장소 [堂]<sup>20)</sup>에서, 일정한 목적으로 歌唱되는 것이라면, 비록 인공조건의 채록일지언정 노래로 불리워져야 완벽한 본풀이 서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자료들에서 C는 필자가 제보자를 당으로 모셔다 놓고, 가상으로 제물을 올려 노래로 채록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자연조건의 것만큼은 완벽한 자료일 수는 없겠다. 그러나 이야기로 채록된 자료인 A, B가 한 처녀의 출생에서부터 怨死하여 堂神으로 좌정하기까지의 내용으로 끝나 버리는 데 반하여, 노래로 채록한 C의 본풀이는 堂神으로 좌정한 이후의 사실들까지 노래되어지고 있다.<sup>21)</sup>

여러 異本들을 상대로 表面部位에 나타난 본풀이의 수평적 구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련의 화소들을 정리해 보자.

注 19) 필자에 의하여 채록된 자료는 본고 부록 참조.

20) 堂神을 집으로 모셔 奉祭하는 경우도 있다. (후술 참조).

21) 본고 부록 참조.

① 이 마을에 15세인 박씨애기(처녀)가 해변<sup>22)</sup>에서 홰파래를 캐고 있었다. (A, C, D)

② 그 때, 일본 낚싯배가 물길러 '큰물' <sup>23)</sup>로 오게 된다. (A, B, C, D)

③ 倭賊들이 '큰개'에서 홰파래를 매고 있는 박씨 처녀를 겁탈하기 위하여 쫓는다.(A, B, C, D)

④ 박씨 처녀는 왜적들에 쫓겨 도망가다가 현재의 堂 위치에서 겁탈당하고 죽는다.(A, B, C, D)

⑤ 박씨 처녀의 怨靈은 伸冤의 뜻으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질병을 준다.(C)

⑥ 마을의 信仰民들이 扞日하고 堂에 와서 제를 올리면, 질병을 고쳐주는 靈及 좋은 당이다.(C)

자료 D는 박씨 처녀가 倭賊들로부터 쫓기기 전에 해변에서 '보말(작은 고동)'을 줍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전체적인 본풀이 전개상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아 물론, 여러 화소들이 모여 한 본풀의 수평적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자료 C는 전 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리된 본풀이의 사건전개는 起, 承, 轉, 結의 4단계 구성에 비취볼 때, 여타의 당본풀이 구성과는 달리 죽음을 통하여 堂神으로 좌정하게 되는 특이한 구성으로 짜여 있다.

①~②는 起段으로, 이 마을의 박씨 처녀가 15세에 '큰개(浦)'에서 홰파래를 캐고 있었는데, 일본 어선이 이 마을에 있는 '큰물'에 물길러 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풀이 전체 구성에서 볼 때, 한 처녀가 怨死할 수 있는 외적 상황을 제시하는 단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注 22) '큰개'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23) 이 마을 중심에 위치한 生水.

③-④는 일본인 어부가 박씨 처녀를 겁탈하기 위하여 쫓아오자 지금 堂이 위치한 곳까지 도망갔으나, 그 곳에서 겁탈당하여 죽게 된다. 모든 처녀당 본풀이와 마찬가지로 처녀인 나이에 怨死하게 된다는 것은, 본풀이 전체적 구성에서 볼 때 承段이 된다. 여기서 박씨 처녀의 죽음은, 영웅의 일대기를 그리는 대부분의 說話와 古典小說에서 작품의 轉機를 만드는 승리를 위한 죽음<sup>24)</sup>도 못 되며, ‘고통없이 未來世로 이어지는 죽음<sup>25)</sup>’, 도 아니다. 신앙민들에게 흥험을 주고, 봉제받으며 살아가는 한맺힌 怨鬼로 존재하게 될 뿐이다.

⑤~⑥까지의 본풀이 轉段은 하나의 伸冤部다. 박씨 처녀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伸冤의 方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부스럼을 준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몸에 부스럼이 나면, <박씨할망> 堂神의 조화라고 믿게 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吉日을 택하여 奉祭하게 된다는 것이다.

⑦은, 원령이 마을 사람들에게 흥험을 주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원령의 恨을 푸는 과정이 계속되면서, ‘할망당’으로 좌정하게 된다는 것은, 여타의 당본풀이 구성처럼 結段이 된다 하겠다.

이렇게 분석해 볼 때 <불랫낭할망당> 본풀이 구성은, 박씨 처녀가 처했던 외적 상황(起) - 외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서 오는 怨死(承) - 부스럼을 주고 신앙민들에게 伸冤 요구(轉) - 堂神으로 坐定(結)하게 되는 구성으로 짜여져 있다.

처녀당 본풀이의 구성은, ‘出生 - 結緣, 苦行 - 回運, 出世 - 幸福,<sup>26)</sup>으로 이어지는 古代小說의 構成과도 양상을 달리한다. 古代小說의 結末이 행복을 쟁취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처녀당 본풀이의 結末은 한맺힌 神의 모습으로

注 24) 趙東一; “英雄의 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 『東亞文化』 10輯(서울 大 東亞文化研究所, 1971), PP. 163 ~ 214.

25) 李仁福; 「韓國文學에 나타난 죽음意識의 史的研究」(悅話堂, 1981), PP. 73 ~ 75.

26) 朴晟義; 「韓國古代小說과 史」(日新社, 1973), PP. 34 ~ 35.

남아 一定한 聖域인 堂에 좌정해 있으면서 신앙민에게 恫恤으로 伸冤을 알리고, 奉祭받는 處량한 神으로 존재할 뿐이다.

## 2) <현씨일월당> 본풀이

<현씨일월당>을 本郷堂神으로 모시고 있는 域山邑 新川里에는 1,150 여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중 40%가 延州 玄氏로 동족부락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堂神의 姓이 玄氏인 점을 감안할 때, 깊은 연관이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마을에는 교회나 사찰이 없는 반면에 堂이 넷이나 있어 그 神格이나 성격을 달리한다. 주민이 신앙하는 분향당으로는 <고춧당>과 <현씨일월당>이 있고, ‘가짓당,<sup>27)</sup>으로는 表善面 兎山里에서 온 <토산우드랫당>과 旧左邑 細花里에서 온 <세화당>이 있다.

이 마을에서는 <현씨일월당>만 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堂은 10평 정도 들담으로 둘러 있고, 제단 뒤 한 나무에는 한복이 입혀 있다. 곧 神木의 表象이다.

堂이 위치한 뒷밭에는 堂神과 그 부모의 묘까지 셋이나 있어서, 이 당의 맏인심방들이 대<sup>28)</sup>를 이어오며 벌초를 해 오다가 지금 이 당에 맏인심방(신명숙; 여·66)의 나이 43세에 두 묘가 도굴당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벌초를 않고 있다. 여기에서 堂神은 실재 인물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

27) ‘가짓당’이란, 堂이 본래 있던 마을에서 堂神이 완전히 타 마을로 옮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堂이 여러 곳으로 분파됨을 뜻한다. 이렇게 堂이 분파되는 것을 「가지 가른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당을 ‘가짓당’이라 한다.

‘가짓당’이 생기게 되는 경우는, 堂神이 한 마을에서 타 마을로 시집가는 여자가 분파시켜 가서 ‘가짓당’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고에서 다뤄지는 처녀당들인 경우, <현씨일월당>·<토산우드랫당>·<호근이마루우드랫당>이, 이에 해당된다.

28) 이 堂에 대를 이어 온 심방은, 김씨-강씨-고씨(제보자의 외삼촌)-제보자의 어머니-제보자까지 5대를 이어오고 있다. 제보자는 본고 부록 참조.

할 수 있게 된다.

玄氏日月神은 이 마을에 본향당 神으로 좌정해 있으면서도, 이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시집가는 여자 뒤를 따라서 城山邑 일대는 물론 表善面과 南元邑까지 분파된 堂神인데, 南元邑 下禮 2리에서만 ‘가짓당’으로 모셔지는 실정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집안에서 ‘안칠성’ 내지는 ‘밭칠성’으로 신을 모신다.

지금까지 <현씨일월당> 본풀이의 자료는 모두 6편이 채록된 셈인데, 그 중 4편은 秦聖麒님에 의하여 채록되었고, 둘은 필자에 의하여 채록되었다. 필자가 채록한 두 개의 본은 당 祭日에 직접 채록된 자연조건의 것과, 제보자의 집을 방문하고, 인공조건에서 채록한 것이다. 이들 중에서 진성기님이 채록한 두 편의 본풀이는, 그 전개가 정연하지 못하여 제외시킨다.

본풀이번호	채록자	제보자	발표지 (페이지)	비고
A	秦聖麒	고옥순	南國의 巫歌 (547-548)	
B	"	정두삼	" 549-550)	
C	필자	신명숙	본고부록	인공조건의 채록
D	"	신명숙	"	자연조건의 채록

위 자료들에서 D 본풀이는 自然條件에서 채록된 것으로 본풀이가 口誦되기 전에 <날과 국섬김>→<예명올림>의 제차가 있으나,<sup>29)</sup> 본풀이 전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시킨다.

본풀이 구성을 살피기 위하여 4편의 話素들을 나열해 보자.

注 29) 본고 부록 참조.

- ① 玄氏 처녀 ( 차후 堂神이 됨 ) 의 아버지는 현씨요, 어머니는 고씨다.  
( A, B, C, D )
- ② 그의 집안은 양반의 가문이다.( B )
- ③ 세 살과 일곱 살에 죽을 병 ( 巫病? )에서 시달리다가 김씨 심방을 만나 巫業을 시작하게 되면서 살아나게 된다.( A, B, C, D )
- ④ 가족이라곤 하나뿐인 그의 오빠는 누이 동생의 목숨을 연명하게 하기 위하여 심방이 되어도 좋다고 한다.( B )
- ⑤ 어느 날 玄氏一家에서는 현씨 처녀에게 굿해 주길 요구하나, 巫具와 巫服이 없어 못하게 되고, 그의 오빠는 그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다.  
( C, D )
- ⑥ 오빠는 누이 동생에게 서울 國馬進上갔다 오는 길에 巫具를 마련하고 온다고 약속하고, 고쳐浦口를 빠져나가다가 홀연광풍을 만나 죽는다.  
( A, B, C, D )
- ⑦ 현씨 처녀는 烟台 ( 봉수대 )에 앉아서 오빠가 타고가는 배가 전복되는 광경을 바라보고는 거기에서 떨어져 죽어 버린다.( A, B, C, D )
- ⑧ 현씨 처녀의 怨靈은 伸冤의 뜻으로 요령소리 ( 鬼聲 )를 울렸으나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자, 현씨 일가의 한 어린애에게 급병을 준다.  
( C, D )
- ⑨ 玄氏一家에서는 ( 어느 해 ) 己未年 설달에 죽은 김씨 심방을 불러다가 굿을 치르니, 현씨 처녀의 怨靈 때문이라고 한다.( A, B, C, D )
- ⑩ 원령을 慰撫하니 애기의 급병은 나았고, 원령의 요구에 따라 堂神으로 모시게 된다.( C, D )
- ⑪ 이 마을의 현씨들은 상단골, 고씨들은 중단골 등으로부터 봉제받는 堂이다. ( A, B, C, D )

(1)~(4)는 현씨 처녀가 처했던 내적 상황을 제시하는 단락으로 起段에 속한다. 양반의 가문에서 현씨인 아버지와 고씨인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으나, 부모를 일찍 여의고 오빠만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상황에 부딪친다.

그의 처량한 내적 상황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生死路를 넘나드는 巫病에 시달리게 된다. 그의 病苦는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심방이 되어야만 죽음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八字를 갖고 태어난 것으로, 현씨 처녀가 처했던 내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⑤~⑦의 承段은, 어느 처녀당 본풀이에서나 마찬가지로 한 처녀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다는 怨死部가 된다. 현씨 처녀는 巫具와 巫服을 마련하기 위하여 國馬進上船을 타고가던 오빠의 죽음에 따라 스스로 봉수대에서 떨어져 죽게 된다. 그의 죽음은 심방이 되어서라도 목숨을 연명해야겠다는 꿈의 좌절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

현씨 처녀의 오빠는 동생에게 巫具와 巫服을 마련해 줄으로써 누이 동생의 삶은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그 확신은 國馬進上船에 同船해야 했고, 서울로 진상선을 타고 가다가 모진 광풍을 만나 죽게 된다. 이것은 현씨 처녀의 외적 상황이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현씨 처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외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서 오는 怨死일 따름이다.

여기에서 현씨 처녀가 처했던 외적 상황은 그의 것만이 아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제주 사람들의 것으로 확산될 수 있다. 지난 날 제주도에서 국마진상선을 탄다는 것은 죽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현씨 처녀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伸冤해 줄 것을 요구하여 玄氏一家의 한 어린애에게 凶驗을 준다. 그래서 ⑧~⑨는 轉段으로 伸冤部라고 할 수 있다. 현씨 처녀의 怨靈은 伸冤을 요구하여 밤낮으로 요령소리를 울렸으나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것은, 怨恨은 풀어야하고 풀어줘야 한다는 민중들이 욕구라고 해도 좋다. 그 욕구가 이뤄지지 않자, 玄氏一家의 한 어린애에게 급병을 일으켜 버린다. 드디어 玄氏一家에서는 어느 해 己未年 설달에 죽은 김씨 심방을 불러다가 굿하니,<sup>30)</sup> 현씨 처녀

注 30) 注. 28 참조.

怨靈의 조화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한 원령이 伸冤을 요구하여 生人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그 집에서는 심방을 불러다 怨靈의 恨을 풀었을 때, 질병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思考는 「三国史記」琉璃王条까지 역급될 수 있는 현상<sup>31)</sup>이기도 하다.

⑩~⑪은 원령인 현씨 처녀의 요구에 따라(심방의 입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지만) 堂神으로까지 모시게 되고, 여러 신앙민들로부터 봉제받는 堂이 되었다는 것은 본풀이 結段이다.

<현씨일월당> 본풀이에서 伸冤을 알리는 伸冤部인 軛段은, 앞에서 서술한 <불랫낭할망당>의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과, 굿을 통하여 원령을 堂神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점은, 앞으로의 논지 전개상에 주목을 요하는 것이기도 하다.

### 3) <토산 9드랫당> 본풀이

<토산 9드랫당> 본풀이 해석을 위해서는 종래의 오류들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뱀'에 관한 문제다.

南濟州郡 表善面 兎山里의 本郷堂인 <토산 9드랫당>인 경우는, 蛇神을 모시는 堂이라 하여 先學들의 관심은 뱀을 崇拜하는 Totem 信仰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다.<sup>32)</sup>

그 중 卓明煥님은, 뱀을 세스의 상징으로 규명하고, 두 처녀가 왜구에 쫓겨 겁탈당하는 사실을,

注 31) '三国史記', 高句麗本記 琉璃王条.

"十九年秋八月 郊豕 王使託利·斯卑追之 至長屋潭中得之 以刀断其脚筋王聞之怒曰 祭天之牲 豈可傷也 遂投二人坑中殺之 九月王疾病 巫曰 託利·斯卑為祟 王使謝之 即愈."

32) ○卓明煥; "濟州 蛇神 信仰에 對한 小考", 韓國文化人類學 10輯 (한국문화인류학회, 1980)

○秦聖巖; "濟州島의 뱀信仰", 韓國文化人類學 10輯 (한국문화인류학회, 1980)

왜구에서 쫓겨 도망치던 아낙네의 「치마가 벗겨지고 밭이 드러나고」라는 대북의 그런 상황 속에서 뱀을 만났다는 사실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성적욕구가 뱀이란 신앙대상을 통해서 응화되었다. 뱀을 보고 놀라 병이 났다는 사실은 평소 그녀의 성적욕구가 뱀으로 인해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심방을 불러 굿을 하고 병이 나았다는 것은 그 욕구가 해결됐음을 뜻한다.<sup>33)</sup> (가점 필자)

라고 했다.

처녀들이 왜구에 쫓기다 뱀을 만났다는 사실은 필자가 이미 조사된 4편의 자료에서 살펴보더라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혹 찾을 수 있다고 해도 뱀의 상징은 본풀이 전편에 흐르는 본풀이 맥락 속에서 규명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M. Eliade는 그의 「宗教形態論」에서, 달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녀의 머리카락이 뱀으로 변하기도 하여, ‘뱀은 다양한 意味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再生>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意味의 하나<sup>34)</sup>라고 하여, 뱀은 여러 再生의 상징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뱀의 상징성에 관한 이 모든 것이 제주도 口碑傳承物에 나타나는 뱀의 상징성과 같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많은 口碑傳承物들에는 뱀의 화소들이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제주도에서 신앙되는 在來神이건 外來神이건 일정한 계기에 나타나는 신의 化身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토산요드랫당>에 나타나는 뱀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타 說話들 중에서 어떠한 神이 뱀으로 변신하여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다.

注 33) 卓明煥 ; 甞 論, P. 79.

34) M. Eliade ; 「宗教形態論」(李恩奉 訳, 螢雪出版社, 1979), P.187.

① 허좌수(許座首)는 배슬살이 훔 때, 이 당 질치는 디 툄(馬) 탄 채 당(堂) 앞을 기냥(그대로) 지나가단 툄발(馬足)이 절언 툄이 죽음 데다. 허난(하니까) 심방(神房)을 불러 놓고,

「이게 어떤 일일러냐?」

「이 당 영기(靈氣)로 기영 뵙니다.」

「물케기(馬肉) 못먹는 귀신이로구나, 불케기 잡앙 먹도록 굿하라.」  
허여 툄을 잡아 놓고 굿을 허여가니, 대망(大蛇)이가 움치움치 나와가난, 허좌수(許座首) 돌려들어 죽이젠 허니, 청(靑)비둘기로 환생(還生) 허여 질오름으로 가 떨어집데다.<sup>35)</sup> (가점 필자)

② (허좌수가……) 넘어가단 보난, 굿을 험시니까(하고 있더니까),  
“이제 대신(大神)을 나오게 굿을 해라.”

경해연(그래서) 이제 대신(蛇)을 나오니까, 이제는 확 잡아가지고 가자(갖고) 가면서……<sup>36)</sup>

③ 이목사는 곧 이 당의 메인심방(專屬巫)을 불러들였다.

「이 당의 신령이 세냐?」

「예, 그런 줄로 아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잡아서 곧 굿을 하고 신령을 보여라.」

누구의 영(靈)이라 심방은 벌벌떨며 말을 잡아 큰굿을 시작했다. 굿이 한참 진행되어가니, 당에서 큰 뱀이 나와 꿈틀거리며 허를 날름거렸다.<sup>37)</sup>  
(가점 필자)

注 35)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新丘文化社, 1980), P. 731.

36) 1982. 3.,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 2리, 양남학(남, 63) 구술.  
현용준, 고광민 채록.

37) 玄容駿; 「濟州島伝説」(瑞文堂, 1977), P. 271.

④ 대신을 맞는 날은 그 주인이 베잘리(자루)를 하나 장만해 뒤서마  
 썸(뿔지요). [조사자:예.] 베주머니 마썸. 그 주인이 하날 장만해 뿔  
 다가, ‘이제 대신맞는 날 대신이 나 눈에 보이게끔 굿을 해라.’  
 심방덜이 굿을 하니까, 그 큰 뱀이 나오니까니,  
 “대뱀(큰 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잘리(자루)를, 베잘리를, 주머니를 주면서,  
 “이 안터레(안으로)들어오게 해라. 38) (가점 필자)

⑤ 서판관은 이 뱀굴의 소문을 듣고 괴이한 일이라 분개하였다. 곧 술  
 ·떡·치너를 올려 굿을 하도록 하고, 봄소 군졸을 거느리고 김녕 뱀굴에  
 이르렀다.  
 굿이 시작되어 한참 진행돼가니, 과연 그 어마어마한 뱀이 나와 술을  
 먹고 치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39) (가점 필자)

위에 열거한 것들에서 ①과 ②는 新·下禮里와 西婦浦市 上孝마을에서  
 모셔지는 本郷堂 본풀이 내용의 일부다. 한 판리[座首]가 이 당 앞을  
 지나다가 굿하는 광경을 보고, ‘신이 내 눈에 보이게끔 굿해라’는 요구  
 에, 하나의 人格神이 뱀으로 변신하여 나타나게 되는 경우다. ③은 安德面  
 德修里 広静堂에 얽힌 본풀이의 일부다. 여기의 堂神은, 제주도 堂神들의  
 元祖랄 수 있는 北濟州郡 旧左邑 松堂里 본향당신인 ‘금뱀주’의 둘째  
 아들이라고 관념되는 인격신이다. 40) 그런데, 이조 시대에 제주도 牧使를 역  
 임한 李衡祥이가 이 당 앞을 지나다가, ‘神을 위해 굿을 하는 것이라면,  
 그 신의 실체를 보여라.’는 요구에 인격신이 뱀으로 변신하여 나타난  
 경우다.

注 38) 注. 36) 同.

39) 玄容駿; 「위 자료집(1980)」, P. 115.

40) 玄容駿; “濟州 堂神話考 -松堂系神話를 中心으로-”, 「제주도」 3호  
 (제주도, 1961) 참조.

④는 <토산9드랫당>을 신앙하는 집(南濟州郡 安德面 創川里, 속칭 뱀머릿집)에서 고티할 때,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남자 주인과 堂神과의 갈등이 묘사된 부분이다. 주인은 심방에게 ‘신이 존재한다면 내 눈에 보여라’고 말한 데서 堂神은 뱀으로 화신한다. ⑤ 또한 神의 존재를 거부하는 서련 판관과 신과의 갈등에서 신이 뱀으로 화신하여 나타나는 내용이다.

이상의 사실에서 볼 때, 제주도 口碑傳承物에 나타나는 뱀은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座首・牧使・判官—들과의 갈등에서만 나타나는 人格神의 即物化인 것이다. 그래서 그 神들은 꼭 승리한다는 점이 주목되며, 유교와 巫神과의 갈등을 표상화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토산9드랫당> 神=뱀’의 공식은 극복되어야 한다.

<兎山9드랫당> 본풀이는 두 神의 來歷譚이 하나의 본풀이로 묶여져 있다. 하나는 羅州 錦城山에 좌정해 있다가 한 牧使와의 갈등에서 패하여 쫓겨나 이 마을에 좌정한 신의 이야기고, 41) 두번째는 이 마을에서 그 신을 잘 대접하지 않자, 이 마을의 한 처녀를 왜구들로부터 겁탈당하도록 조화를 부린다. 그 결과 왜적들로부터 죽음을 당한 처녀의 怨靈에 대한 본풀이 내용이다.

우선, 나주 금성산에서 쫓겨 이 마을에 좌정한 神의 이야기 전개를 보자.

나주 금성산에는 蛇神이 살고 있었는데 그 신의 조화로 어느 복사건 부임하면 100 일을 못보내게 되어 조정에서는 걱정하고 있었다. 이 때, 李牧使가 부임하겠다고 자원하니, 임금은 허락하여 부임하게 된다.

부임차 금성산 길을 지나는 도중에 같이 가던 妓童通引이 복사에게 下馬할 것을 권고하나, 복사는 거절한다. 드디어 신의 조화로 말발이 절어온다.

---

注 41) 濟州島 堂神들 중에는 왜래에서 入島하여 일정한 마을에 좌정하게 되는 神들이 여럿 있다. 玄容駿; “堂神話의 Motif와 基本形式”, 国文学報 2輯(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1964), PP. 81 ~ 85 참조.

목사가 그 원인을 하인에게 물으니, 금성산의 神靈 때문이라고 한다. 신령을 보이려고 하니, 신은 마침 고운 처녀의 몸으로 나타나 보인다.

목사는 巫女를 불러 굿을 하게 하니, 처녀는 입이 큰 뱀으로 변한다. 목사는 신을 죽이기 위하여 堂에 불 지르니, 神은 바둑돌로 변해서 종로 네거리에 떨어지고 만다.

그때 마침 제주도에서는 강씨, 오씨, 한씨가 서울에 國馬進上次 갔다가, 오씨가 바둑돌을 발견하고 줍는다. 세 사람은 바둑돌로 술을 바꿔먹기 위하여 술집에 갔는데, 술집 아주머니의 눈에는 보물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오씨 선주는 이상한 물건이라고 하며 바둑돌을 던져 버리니, 그 돌은 강씨 선주의 보자기에 숨어 버린다.

제주도로 올라고 배의 닻을 감으려니 뱃발(船足)이 전다. 곧장, 심봉사에게 가서 점치니, 강씨 선주의 보자기에 들어 있는 바둑돌 때문이므로 굿을 해야 배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굿을 해서 배는 무사히 제주도 溫坪里 포구에 입항한다. 바둑돌은 神으로 변하여 온평리 本鄉堂神에게 명암을 드렸더니, 이 마을에서는 좌정할 수 없으니 兎山里로 가 보라고 한다.

神은 온평리 본향당신의 말대로 토산리로 가다가 新·下川里에 이르러, 이 마을의 堂神인 '개로육서또'를 만난다. '개로육서또'는 자기가 길을 안내 하겠다며 손목을 잡는다. 토산리로 향하던 신은 '개로육서또'에게 잡혔던 손목이 더럽혀졌다고 하며, 스스로 銀粧刀로 손목을 잘라 버리고는 명주로 상처부위를 감는다.

혼자서 토산리에 가서 좌정한다.

여기까지의 본풀이 전개는, 어느 본에서나 전해지는 <토산요드랫당> 본풀이 중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이다. 전반부는 羅州 錦城山の 神과 그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목사와의 투쟁에서 패하여 쫓김을 당한다. 그 신은 바둑돌로 변하여 종로 네거리에 떨어지게 되고, 제주도에서 國馬進上次 서울에 갔던 선원을 따라 제주도에 들어와 兎山里 本鄉堂神으로 좌정하기까지의 내용이다.

이와 같이, 제주도 사람이 서울에 각종 進上을 갔다가 사고 온 물건 등에 神이 따라왔다는 내용의 본풀이는 다른 본향당 본풀이에도 있지만,<sup>42)</sup> 본고에서 논급될 본풀이는 兎山里에 本郷堂神이 좌정하고 난 후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 마을의 본향당신은 둘이 된다. 하나는 나주 금성산에서 쫓겨나 이 마을에 좌정한 신이고, 하나는 이 신을 잘 대접하지 않자 조화를 부려 한 처녀를 怨死하게 만들었다는, 바로 그 怨靈이다.<sup>43)</sup>

본고에서 다룰 <토산9드랫당> 본풀이 중, 바로 그 처녀의 怨靈에 대한 내력이 담긴 본풀이 異本들은 다음과 같다.

본풀이 번호	채 록 자	제 보 자	발 표 지 ( 페이지 )	비 고
A	玄 容 駿	安 仕 仁	濟州島巫俗資料事典 (545-572)	
B	〃	韓 元 平	〃 (712-721)	
C	秦 聖 麒	朴 生 玉	南國의 巫歌 (584-595)	
D	秋葉隆・赤松智城	朴 奉 春	朝鮮巫俗の研究(上) (357-369)	

위의 異本들에서 본풀이 A는, <토산9드랫당> 神을 신앙하는 信仰家에서 행해진 곳에서 채록된 自然條件의 것이라면, 본풀이 B, C, D는 인공 조건에서 채록된 것인 듯하다.

앞에서 이미 밝혔 듯이, <토산9드랫당> 본풀이는 堂神이 羅州 錦城山에서 兎山里 본향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이야기와, 좌정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神에게 대접하지 않자, 한 처녀를 倭賊들로부터 겁탈당하도록 조화를 부려 怨死케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怨靈도 堂神이 되어 여러 신앙민들로부터 奉祭받게 된다.

注 42) 玄容駿; 위 자료집, PP. 681 ~ 686 참조.

43) 현재 <토산9드랫당>에 대한 신앙은 거의 후자의 神에 치중되고 있다.

本考에서 논급될 것은 후자의 본풀이 내용이므로, 후자의 것만을 여러 異本을 상대로 일련의 사건 전개를 알아보기로 한다.

① 羅州에서 피신해 온 神이 兪山에 와서 좌정했으나 어느 누구도 대접하지 않는다. (A, B, C, D)

② 그러자 神은 이 마을 앞 바다에 떠 있는 倭船을 청부채로 쳐서 연안으로 오게 조화를 부린다. (A, C, D)

③ 하루는 오씨 선주의 딸이 '느진덕정하님'을 데리고(A) [한집님(堂神)이 하인을 데리고(B), 강씨 형방의 딸이(C), 吳座首의 딸이 조씨 하님을 데리고(D)] 가족들의 옷가지를 빨기 위하여 '울리소'에 간다.

④ 왜적들이 '울리소'로 뛰어와서 겁탈하려 하니 하인은 도망가고, 한 처녀는 항거하다 죽는다. (A, B, C, D)

⑤ 시체를 '고장난밭(또는, 예문은동산)'에 안장한다. (A, B, D)

⑥ 겁탈당해서 죽은 처녀가 곱곰이 생각하니, 진상갔다가 바둑돌을 주워 온 강씨 선주가 깨섐했다. (A)

⑦ 강씨 아미가 시집갈 때 오씨 아미의 怨靈이 가맛대에 따라가서(A), [怨靈이 加時里 편안 강씨 아미에게 가서(B), 한씨 이방의 딸이 시집가니(C), 怨靈은 강씨 형방과 한씨 이방의 딸에게 가서(D)] 신병을 일으킨다.

⑧ 환자외 집에서는 占者에게 門卜하니, 굿하라고 한다.(A, B, C, D)

⑨ 굿할 때, 환자들은 아버지가 진상갈 때 갖고 온 명주를 갖고 자신의 간장을 풀어주길 요구하고, 심방이 간장을 풀어주니 병이 나았다.

(A, B, C, D)

⑩ ○강씨, 오씨, 한씨 아미는 간장이 풀렸고, 그 가문들은 상, 중, 하단 꼴이 된다. (A, B)

○굿을 해 가니 여러 뱀이 환생하여 현재의 당 위치로 가서 좌정한다. (C)

○죽은 神位(吳座首의 딸)는 神堂으로 모시게 되고, 그 집안에서는 일월조상(家神)으로 모시게 된다. (D)

이 마을에서는, 나주에서 피신당하여 이 마을에 좌정한 신을 어느 누구도 대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은 조화를 부린다. 그것이 이 마을 앞 바다에 떠 있는 倭船을 청부채로 돌풍을 일으켜 전복시킨 것이다. 왜적들은 연안으로 헤엄치고 와서 '올리소'에서 빨래하는 처녀를 겁탈한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비극을 마을의 모든 것을 수호해 주는 신의 조화로 믿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된 대체적인 논지는, 왜적들로부터 겁탈당한 주체는 羅州 錦城山에서 이 마을로 피신해 온 神으로 간주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B의 본풀이에서는 겁탈당한 주체가 '한집님(本郷堂神의 異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산 9드랫당>의 여러 본풀이들을 한 자리에 놓고 볼 때,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겁탈당한 주체가 堂神이라는 B의 본풀이 외에, 본풀이 A는 오씨 선주의 딸이라 하고, 본풀이 C는 강씨 刑房의 딸이라고 한다. 또 본풀이 D는 吳座首의 딸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 마을의 信仰民들이 마을의 諸般事를 지켜주는 堂神을 잘 대접하지 않음으로써 왜적들로부터 겁탈당하는 흉험을 주었다는 사고, 그래서 한 처녀가 죽었다는 因果關係에서 비춰보더라도, 겁탈당한 주체는 신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왜적들로부터 피해받은 주체가 제보자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승상의 變異이기도 하지만, 倭賊들로부터 받은 피해에서 오는 가슴의 응어리(恨)가 여러 사람으로 확산됐음을 示唆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본풀이의 수평적 구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①~③의 화소들은 起段으로 狀況提示部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처녀가 처한 외적 상황 중에서 ①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 마을의 諸般事를 수호하는 本郷神을 대접하지 않음으로써 한 처녀가 倭賊들로부터 피해입었다는

사실은, 하나의 관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倭賊들이 이 마을 해변에 위치한 ‘올리소’로 오게 된 연유도 堂神이 이 마을을 잘 보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표현되나, 이것은 이 마을이 처한 역사적 상황 이면서 동시에 올리소에 빨래하러 간 한(?) 처녀의 외적 상황이기도 하다.

한 처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怨死하게 된다. 이것은 어느 처녀당 본풀이의 承段에서 처럼 怨死部에 해당된다. 본 본풀이의 공통 전개에서 이에 해당되는 것은 ④~⑤의 화소인데, 자연조건에서 채록된 본풀이 A인 경우는 접탈당하는 사실이 극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아이고, 설운 상전(上典)님아, 상전님아, 뒤으로 도적이 당허엿수다.」<sup>①</sup>

「도적이 당하고 아무개 당하고.」

어쩍어쩍 주부연쩍허녀. <sup>②</sup> [樂. 손으로 허리를 잡고 춤]

어쩍어쩍 주부연쩍, 뒤으로 돌려들어 아가씨 췌대(燧臺) ㄱ똥 허릴 안  
아 접탈(却奪)을 허여부난, <sup>③</sup> 상전(上典)님도 후릿후릿 죽어간다.

44)

(가점 필자)

[注: ① 오씨 처녀의 하인인 ‘느진덕정하님’이 그의 上典(오씨 처녀)에게 倭賊들이 당도했음을 전하는 말. ② 접탈당함을 달리 표현한 말. ③ 해 버리니.]

자연조건에서 채록된 경우, 한 처녀가 倭賊들로부터 접탈당하여 怨死하는 상황이 본풀이 사실 중에서 극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樂은 물론 巫樂이며, 심방은 그 巫樂에 맞춰 허리를 잡고 춤춘다. 이것은 접탈당하는 사실을 再演하는 것이기도 하며, 倭賊에게 항거하는 몸짓이기도 하다. 드디어 오씨 처녀는 죽고 만다. 어떤 본풀이에선 ‘예불은동산’에 묻혔다고도 하고, ‘고장난밭’에 묻었다고도 전한다.

처녀당 본풀이들에서 처녀들의 怨死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伸冤의

注 44) 玄容駿; 위 자료집, P. 155.

방법으로 凶驗을 주게 된다. <토산9드랫당> 본풀이 중에서 伸冤部에 해당되는 轉段은 ⑥~⑩까지다. 처녀의 怨靈은 여러 처녀들에게 급병을 준다. 동네 처녀가 시집가는 데 가맞대에 따라가서 병을 주는가 하면(A 본풀이 경우), 한 애기에게 가서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C 본풀이 경우) 이것은 怨恨은 풀어줘야 한다는 민중들의 思考이면서, 동시에 신원을 요구하는 원령의 몸짓이기도 하다. 이것은 원령이 堂神으로 모셔지는 轉機가 된다.

<현씨일월당> 본풀이에서 처럼, 현씨 처녀의 원령이 玄氏一家의 한 어린애에게 질병을 주고 굶을 통하여 怨恨이 풀리 듯이, <토산9드랫당> 본풀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환자의 집안에서는 가족의 병이 倭賊으로부터 겁탈당해 죽은 처녀의 조화로 보게 된다. 그래서, 굶을 통하여 처녀의 怨恨을 풀어 주면서, 그들의 病苦에서 벗어나게 된다. 드디어 환자의 요구에 따라 명주로 고(매듭)를 만들어 맺힌 가슴(恨)을 풀어 준다. 여기에서 환자의 요구는, 곧 처녀 怨靈의 요구를 대변한 것이다. 이렇게 환자와 원령의 요구에 따라 명주로 고를 만들어 풀어주니 병고에서 헤어나게 된다. 어느 본풀이에서나 나타나는 이 ⑩의 화소는 본풀이 唄이 끝난 후에 극적 행위로 나타난다. 바로 이것이 '방울뿔'이다.(이 극적 행위인 '방울뿔'은 장을 달리하여 논급될 것이다.)

이렇게 극심한 흉험을 준 원령은 堂神으로, 또는 家神(일월조상)으로 모셔지게 된다. 이것이 結段으로 화소 ⑪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때 怨靈의 조화로 흉험을 당했던 가문에서는 <토산9드랫당>의 신앙 집단이 되었고, 그 가문에서 한 처녀가 시집갈 때마다 이 원령도 같이 따라가서 그 처녀로부터 奉祭받는다. 이것이 제주 사람들의 관념 중에, '이 마을 여자가 시집갈 때는 뱀이 꼭 따라간다'는 말이다. 이 마을에서 시집가는 여자는 반드시 이 원령을 조상신 내지는 堂神으로 모셔 봉제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뱀은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人物들 앞에서 나타나는 人格神의 卽物化거나, 시집가는 처녀 뒤를 따라가 꼭 봉제받고야 마는 처녀 怨靈의

象徴物에 지나지 않는다.

#### 4) <호근이마루우드랫당> 본풀이

南濟州郡 安德面 柑山里 남당동(속칭, 도그샘)에는 中文面 上·下獬里 本郷堂神 부부 사이에서 넷째 딸로 태어났다고 전하는 본향당신이 좌정해 있고, 바로 그 제단 맞은 편에는 西帰浦市 好近洞에서부터 安德面 일대까지 분포된 軍威 오씨 집안에서만 모셔지는 호근이마루우드랫당신이 좌정해 있다.

이 본향당에는 남당동 16호의 신앙민들 모두가 정월 초 7일에 공동으로 堂祭를 올리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每月 每七日 중 吉日을 택하여 祭를 지내지만, <호근이마루우드랫당>은 柑山里 280호 주민 중에서 30호의 信仰家에서만 모셔지는 당이다.

호근이마루우드랫당神은 원래 西帰浦市 好近洞을 최초로 설촌한 軍威 吳氏一家의 日月祖上이었다. 吳氏一家의 혈족들이 여러 마을로 분파되면서 柑山里에까지 온 것이다. 柑山里에는 군위 오씨의 父系 또는 母系로 30여 호의 吳氏 혈족들이 살고 있어, 이 마을 안에 사는 그들에 의해서만 공동으로 봉제되어지는 堂이다.

본풀이에 의하면, 이 神은 생전에 北濟州郡 朝天面 李訓長의 딸로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남달리 심방이 되어야 하는 八字를 갖고 태어나게 된다. 이씨 처녀는 심방이 되어야 하는 자신의 팔자를 속이기 위하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旌義(지금의 表善面 城邑里)에서 吳座首를 만나게 된다. 오좌수는 지금의 西帰浦市 好近洞에서 온 旌義縣의 留郷座首였다. 이씨 처녀는 오좌수의 권고에 따라 같이 살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오좌수는 이씨 처녀 몰래 고향으로 가 버린다. 이씨 처녀는 오좌수를 찾아 그의 집까지 찾아갔으나, 집안 식구들의 학대로 못살게 된다. 오좌수와 못 살게 된 이씨 처녀는 자신이 타고 난 八字대로 이 마을 堂의 司祭를 만난 매인심방 노릇을 하다가 원한을 안은 채 죽고 만다는 내용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본풀이 내용에 따라 西歸浦市 好近洞에 가서 조사한 결과 본풀이에 나타난 吳座首는 실재 인물이었다. 그의 7代 후손인 吳○ ○의 말에<sup>45)</sup> 의하면, 오좌는 제주도 軍威吳氏로 旌義鄉校에서 留鄉座首를 지낸 바 있고, 그의 先祖가 가는 곳마다 처를 많이 거느렸을 뿐 아니라, 그 중에는 심방인 처도 있다고 전한다. 바로 이 堂神이 된 이씨 처녀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본풀이는 실재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면서, 비역사적 기록이 기도 하다.

堂神이면서 日月祖上이기도 한 <호근이무루우드렛당> 본풀이는 玄容駿님에 의해서만 채록되어졌다.<sup>46)</sup>

이 자료에는 堂神이 생전에 吳座首를 못잊어 그의 집까지 따라왔으나, 그 집안에서 학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씨 처녀는 그 동네에 살면서 타고난 八字대로 好近里 本鄉堂을 司祭하며 살아 온 매인심방의 生活史가 나온 후에, 이씨 처녀의 출생에서부터 怨死하여 堂神으로 좌정하기까지의 來歷譚이 이어져간다.

상단골(上丹骨)은 오좌수(吳座首) 중단골은 백좌수(白座首) 하단골은 허좌수(許座首) 거느리던 우드레한집.<sup>①</sup>

그 당 앞의 살단 이씨할망 몸을 받은 우드렛당(八日堂)은 이씨(李氏) 본풀이가,

오좌수(吳座首)는 정윳고을(旌義泉) 좌수살고……<sup>47)</sup> (가점필자)

여기에서 앞에 나타난 ‘우드레한집’<sup>48)</sup> 은 西歸浦市 好近洞의 본향당을 일컫음이고, 뒤의 ‘우드렛당’은 바로 이씨 처녀의 怨靈을 보시는 당을 말함이다.

注45) 1982.3.25., 필자와의 談.

46) 玄容駿; 위 자료집, PP. 767 ~ 770.

47) 上同.

48) 西歸浦市 好近洞 本鄉堂의 祭日은 每月 每八日이다. 玄容駿; 위 자료집, P. 734 堂一覽表 참조.

그러면 表面部位에 나타난 본풀이의 수평적 구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 화소들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 ① 吳座首는 고향인 好近里를 떠나 정릿고을에서 좌수살이하게 된다.
- ② 이때, 朝天面 李訓長의 딸이 심방이 되어야 하는 八字를 속일려고 집에서 뛰쳐나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정릿고을에 이른다.
- ③ 이씨 처녀는 정릿고을에서 오좌수를 만난다.
- ④ 이씨 처녀는 오좌수에게 심방이 되어야 하는 八字를 속일려고 돌아다니는 중이라고 말한다.
- ⑤ 오좌수는 이씨 처녀에게 百年言約하기로 하고, 같이 동거하게 된다.
- ⑥ 어느 날, 오좌수는 처녀 모르게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다.
- ⑦ 처녀는 오좌수가 그리워 그를 찾아 好近里에 왔으나, 오좌수의 가족들로부터 학대받고, 혼자서 먼 문 밖에 살게 된다.
- ⑧ 삼 년 후에 오좌수가 죽어도 그의 가족들은 이씨 처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다.
- ⑨ 이씨 처녀도 신병이 나서 죽으니, 그의 가족들은 그를 堂 앞에 묻어 버린다.
- ⑩ 이씨 처녀는 吳氏一家에 흥함을 주고 얻어먹으며 살아가는 神이 된다.

화소 ①~⑤는 이씨 처녀가 처한 상황 제시부로 起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씨 처녀가 처한 상황은 두 가지 면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운명적으로 갖고 나온 내적 상황과, 살아가는 과정에서 숙명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외적 상황이다. 그녀의 내적 상황은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심방이 되어야만 하는 八字를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이요, 외적 상황은 百年言約이 이루어질 수 없는 吳座首를 만나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씨 처녀가 처한 내·외적 상황은 起段에서부터 앞으로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게 된다.

화소 ⑥~⑨는 怨死部로 承段에 해당된다. 이씨 처녀는 그가 처한 내·

외적인 어두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가 받는 학대는 깊어진다. 오좌수와 그녀는 百年言約할 수 없는 상황이면서도, 오좌수를 만나기 위하여 好近里엘 찾아가나 그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오좌수의 가족들로부터 학대받는다. 그녀는 화를 이기지 못하여 철저히 怨死하고 만다. 그녀가 받은 학대는 죽은 후에도 이어진다. 천한 심방의 제집이라고 하여 堂 앞에 묻히고 만다. 사후까지 이어지는 怨恨을 품은 죽음이다.

본 본풀이에서는 여러 처녀당 본풀이 구성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怨死 후의 伸冤部인 轉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朝天面 新興里 <볼랫낭할망당>의 박씨 처녀는 동넛사람들에게 허물로 신원을 요구했고, 城山 嶽 新川里 <현씨일월당>의 현씨 처녀는 한 어린애에게 급병을 주어 신원을 요구했다. 급병을 통하여 신원을 알린다는 것은 <토산요드랫당> 본풀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호근이므루요드랫당> 본풀이에서는, 李氏 처녀의 怨靈이 吳氏一家에 흉험을 주어 봉제받는 신이라고만 나타날 뿐, 그 흉험이 어떤 것인지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 그 원인은 이 본풀이를 조사자에게 전해 준 제보자의 소극적 자세일 수도 있고, 제보자의 망각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대한 극복은 타 제보자를 만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玄容駁님에게 본풀이를 제공했던 제보자(高昌鶴)는 돌아가셔서 다시 만날 수가 없지만, <호근이므루요드랫당>을 5년 동안 司祭를 담당했던 한 제보자<sup>49)</sup>를 만날 수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李氏 처녀의 원령은 신원을 요구하여, 吳氏一家에 화재를 두 번이나 일으켰다고 전한다. 그러므로 본 본풀이 사건 전개상에는 신원부인 轉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怨靈이 신원을 알리는 방법으로 화재를 일으켜 흉험을 줬다는 것은, 본풀이 구성상 轉段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吳氏一族에서는 父系 또는 母系로 혈족이 분파됨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는 일월조상으로, 柑山里에서의 경우는 堂神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다.

注 49) 1981.1.2., 서귀포시 예래동 女巫 김명선(여, 57) 구술.

그러므로, 본 본풀이의 수평적 구성은, ‘이씨 처녀가 처한 내외적 상황 (起) - 학대로 인한 怨死(承) - 화재를 통한 신원 요구(轉) - 一堂神 내지는 日月祖上으로 坐定(結)’으로 이어짐을 보게 된다.

### 5) <마느락당> 본풀이

이 堂은 南濟州郡 安徳面 沙溪里에 좌정했던 당으로, 그 본풀이는 玄容駿님에 의해서만 채록되어진 듯하며,<sup>50)</sup> 채록된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올라사자<sup>①</sup> 마느락당 오씨(吳氏) 아미.<sup>②</sup> 이 본향(本郷)은 옛날 선비덜이 상교(郷校) 멩길(다닐) 때, 대정상교(大靜郷校) 수복(守僕)이 딸인다, 원체 얼굴이 좋아노니까 선비덜이 막 따르는데, 호 선비호고 미쳐시나<sup>③</sup> 상하간(上下間)을 골리는<sup>④</sup> 때문에 살림을 못사난, 이 아기씨가 상교(郷校)에서 자살(自殺)하여 죽어 마느락당으로 좌정(坐定)호 한집<sup>⑤</sup>이우다.<sup>51)</sup>

[注: ①당의 위치가 왼쪽이므로 그 위치를 가리킴. ②「미치다」는 사랑에 아주 빠져 버렸다는 뜻으로 쓴 것. ③가리는, 분별하는. ⑤堂의 異稱.]

위 본풀이 전개를 화소 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大靜郷校 수복의 딸, 오씨 처녀(아미)는 무척 이쁘다.
- ② 그래서 여러 선비들이 그 처녀를 따르는데, 그 중 한 선비와 사랑에 빠진다.
- ③ 오씨 처녀는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사랑을 이룰 수 없자 자살한다.
- ④ 오씨 처녀의 怨靈은 마느락당신이 된다.

注 50) 玄容駿; 위 자료집, P. 773.

51) 注. 50) 同.

〈마느락당〉 본풀이 구성은, 지금까지 다뤄 온 여러 처녀당 본풀이들과는 달리 그 구성이 정연하지 못하다. 그것은 여러 신앙민들이나 심방들의 의식 속에서 사라지는 과정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당의 본풀이는 怨死(承)해서 堂神(結)으로 좌정하는 사이에 伸冤部라고 할 수 있는 軀段이 빠져 있어 여러 처녀당들의 본풀이와는 대조를 이룬다.

〈불랫낭할망당〉 神이 된 박씨 처녀는 허물로, 〈현씨일월당〉의 현씨 처녀와 〈토산오드랫당〉의 한(?) 처녀는 급병으로, 〈호근이마루오드랫당〉의 이씨 처녀는 화제로 흥형을 알렸다. 이러한 흥형들은 굿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그 흥형을 준 怨靈들의 응어리(恨)가 풀리면서, 신앙민들 또한 여러 흥형들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 처녀의 怨靈들이 신원을 알리는 방법으로 흥형을 택하고, 신앙민들은 그 흥형을 초자연적인 힘, 곧 堂神으로 모시는 행위를 통하여 극복하고 있었다. 이럴 때, 〈마느락당〉 神이 된 오씨 처녀도 신앙민들에게 어떠한 흥형으로 신원을 호소하고, 堂神으로 봉제받게 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마느락당〉 본풀이 구성은 再構의 여지가 있게 된다.

본풀이 전개 화소 중 ①~②는 오씨 처녀가 처한 상황을 제시하는 起段이 된다. 천한 守僕의 딸로 태어났으면서도 얼굴이 이뻐기 때문에 선비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된다. 그 선망은 거짓된 선망일 수 있다. 오씨 처녀는 천한 신분의 딸이면서도 얼굴이 이뻐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내적 상황이 철저히 극복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좌절될 수 있는 상황을 늘 거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드디어 화소 ③에서 오씨 처녀는 그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자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만다. 그녀의 죽음의 원인은 신분적으로 천하게 태어난 내적 상황에서도 한 선비를 사랑함으로써 극복해 불려고 했던 데 있다. 그것이 좌절됨으로써 철저히 怨死하고 만다.

본풀이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후 오씨 처녀의 怨靈은 여타 처녀당 본풀이의 軀段에서 처럼 伸冤을 요구하여 흥형을 줬을 것이고, 신앙민들은

그 흉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또는 怨靈을 달래기 위하여 堂을 설연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느락당> 본풀이 구성은 흉험으로 자신의 伸冤을 알리는 轉段은 전하지 않지만, ‘오씨 처녀가 신분적 갈등에서 벗어날려는 상황 (起) - 좌절로 인한 怨死(承) - 신원을 요구하여 흉험(?)을 줌 (轉) - 堂神으로 좌정(結)’로 이어지는 것으로 再構될 수 있게 된다.

#### 6) <마라도처녀당> 본풀이

馬羅島는 우리 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다. 그 섬에 주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842 (憲宗 8)년부터라고 한다.<sup>52)</sup> 지금 이 섬에는 26 가구에 金氏·羅氏·韓氏 등 120여 주민들이 주로 해녀작업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섬에 堂이라고는 섬 북쪽에 돌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sup>53)</sup> 모셔지는, 바로 이 처녀당뿐이다. 이 堂에는 堂神을 만들어서 司祭하는 배인심방이 없어서 노래로 불리워져야 할 당본풀이가 하나의 전설로만 구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섬 주민들은 祭日(七日 또는 朔日)에는 ‘베’한 그릇과 ‘건어’ 하나쯤 준비하고 당에가서 스스로 제를 올리는 실정이다.

섬에 몇 해 동안 해녀작업하며 거주했던 한 해녀의 말은,<sup>54)</sup> 이 당의 신앙 형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이 그 섬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평균 한 달에 한번은 스스로 당에 가서 봉제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섬 주민들은 이 堂神에 대하여, ‘손 부끄러울 줄 모른 할망’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은, 堂神이 자주 아기들에게 병을 주거나 사나운 꿈을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奉祭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뜻으로 쓰인 말이다.

注 52) 朴用厚; 「南濟州郡誌」(상조사, 1978), P. 154.

53) 金泰坤·池春相·玄容駿; 「靈を招く 一韓國のシャーマン」(東京 国書刊行会, 1977), PP. 92 - 93 사진 참조.

54) 大靜邑 加波里 73. 尹順花 구술. 姜根保; 「濟州島 方言의 接尾辭 研究」(제주대 論文集 9輯, 1978), P. 11 ~ 12 참조.

주민들은 스스로 불길하다고 예견될 때마다 당엘 찾아 가 봉제하기 때문에, 섬 둘레가 온통 20 ~ 40 m의 험한 벼랑으로 둘러 있지만, 이 섬 어린이들이 한 번도 떨어지는 액운을 당해 보지 않았다고 믿는다.

앞에서 말했듯이 <마라도처녀당> 본풀이는 하나의 巫歌로 불리워져야 할 것임에도, 堂祭의 司祭를 맡은 매인심방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전설로 구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러 형태로 채록된 본풀이를 상대로 그 전개 과정을 抽出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본풀이의 수평적 구성을 살피기 위하여 여러 異本들을 상대로 그 화소를 전개해 보자.

본풀이 번호	채록자	제보자	발 표 지 ( 페이지 )	비 고
A	姜根保	尹順花	濟州論文集 9輯 (11 ~ 12)	方言研究를위한자료
B	秦聖麒	정신송	南國의 巫歌 (699 ~ 700)	.
C	金榮敦	김영부	韓國口碑文學大系 <sup>(9-2)</sup> (489 ~ 492)	叙事民謠

본풀이 C는 한 해녀가 작업 목표 지점을 향하여 헤엄쳐 나가는 과정에서 불리워지는 민요를 채록한 것인데, 叙事的 성격의 민요이기에 하나의 자료로 택한 것이다.

그러면 일련의 화소를 정리해 보자.

- ① 옛날 마라도에 사람이 살지 않을 때, 허씨 처녀가 아기엄저지로 下慕里 이씨 주인을 따라 마라도에 간다. ( A, B, C, D )
- ② 몇 일 태풍이 불어 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다. ( A, B, C, D )
- ③ 선주(또는, 해녀)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한 사람을 供犧로 바쳐야 이 섬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한다. ( A, B, C )
- ④ 여럿이 의논 끝에 허씨 처녀만 남겨두고 떠나기로 한다. ( A, C )

- ⑤ 승선하기 전에, 허씨 처녀에게 저 ‘설덕’<sup>①</sup>에 가서 지저귀(또는, 담뱃대)를 갖고 오라고 피를 쓴다. (A, C)
- ⑥ 허씨 처녀가 잠시 간 사이에 배가 떠나 버리니, 외치다 굶어 죽는다.(A, B, C)
- ⑦ 몇 해 후, 주민들이 이 섬에 정착하기 위하여 가서 보니, 허씨 처녀의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A, B, C)
- ⑧ 허씨 처녀의 怨靈을 본향당신으로 모신다.(A, B, C)

[ 注 : ①돌들이 앙기정기 쌓이고 잡초목이 우거진 곳. ]

본풀이 B만 ④, ⑤의 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 전 본풀이가 모든 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본풀이 전개는, 한 사람을 공회물로 신에게 바쳐져야 이 섬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꿈꾼 주체에 따라 異本들마가 그 전개가 좀 다를 뿐이다. 꿈꾼 주체가 해녀인 경우는, 아기업저지로 섬에 데리고 갔던 허씨 처녀를 공회물로 섬에 버려두고 가기 위하여 지저귀를 갖고 오도록 피를 썼고, 꿈꾼 주체가 사공인 경우는 담뱃대를 갖고 오도록 피를 썼을 뿐, 한 처녀가 공회 대상으로 怨死하여 堂神이 되었다는 본풀이 전개상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본풀이의 수평적 구성을 알아보자.

화소 ①~④는 허씨 처녀가 처한 상황을 제시하는 起段이다. 처녀는 남달리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아기업저지 신세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 처녀가 처한 내적 상황이다. 그 가난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아기업저지 신세가 되어야 했고, 주인을 따라 무인도인 마라섬에 가야 했다. 그 주인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한 사람을 공회 대상으로 바쳐야 이 섬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한다. 드디어 허씨 처녀가 희생물이 된다. 이것은 허씨 처녀가 처한 외적 상황일 수 있다. 그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화소 ⑤~⑥은 怨死部, 곧 承段이 된다. 남달리 가난했기 때문에 아기업 저지가 되어야 했고, 아기업저지였기 때문에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공회 대상물이 되고 만다. 그녀의 힘으로는 어떠한 상황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죽음이기에 怨死가 된다.

본 처녀당 본풀이 사건 전개 중 怨死하여 伸冤을 알리는 伸冤部인 轉段은 다른 처녀당 본풀이 것과는 양상을 달리한다. 여러 처녀당 본풀이들에서 怨死 후에 伸冤을 요구하여 신앙민들에게 주어지는 흥힘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만, <마라도처녀당> 본풀이에서 허씨 처녀가 怨死 후에 伸冤을 알리는 轉段은 그렇지 못하다. 본풀이 전개에 의하면, 세월이 흘러 여러 주민들이 이 섬에 정착하기 위하여 갔을 때 허씨 처녀의 뼈가 현재 당 위치에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이 광경은 그 주민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흥힘을 예고하는 징조다. 그러므로 허씨 처녀의 원령은 다가올 흥힘을 예고하는 것이기에, 본 본풀이에서 伸冤部인 轉段은 간접적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소 ⑧은 결단으로, 허씨 처녀의 怨靈은 본향당신으로 馬羅島에 좌정하여 주민들에게 흥힘으로 봉제를 요구하며 살아가는 신이 된다.

지금까지 처녀당 본풀이마다 여러 異本들의 話素(motif)들을 일련의 사건 전개에 따라 나열하고, 본풀이 表面部位에 나타난 수평적 구성을 알아왔다. 그 결과, 처녀 堂神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살다간 실재의 인물들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怨死하여 堂神이 된 여러 처녀들의 姓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한 처녀와 연분의 정을 잠시 나눴던 인물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었으며, 무덤까지 있는 堂神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여러 처녀들이 出生에서부터 怨死하여 堂神으로 봉제받기까지의 내력이 담긴 여러 처녀당 본풀이만이 갖고 있는 共通構成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 ① 起: 한 처녀가 처했던 내·외적 상황 제시. (狀況 提示部)
- ② 承: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한 怨死. (怨死部)
- ③ 轉: 凶驗을 통하여 간접적·직접적으로 伸冤 호소. (伸冤部)
- ④ 結: 신앙민들로부터 奉祭받으며 살아가는 堂神으로 坐定. (坐定部)

여기에서 怨死하여 堂神이 된 여러 처녀들이 처했던 내·외적 상황은 한결같이 처량하다. 그래서 八字가 좋지 못하다고 표현된다. 양반의 가문에서 심방이 되어야 하는 八字를 갖고 태어난 <현씨일월당>의 현씨 처녀와 <호근이마루요드랫당>의 이씨 처녀,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기엄저지로 살다가 죽어간 <마라도 처녀당>의 허씨 처녀, 守僕의 딸로 태어난 <마느락당>의 오씨 처녀가 처했던 상황은 운명적으로 갖고 태어난 내적 상황이다. 이러한 내적 상황은 또 극복될 수 없는 외적 상황으로 이어진다. 倭賊들로부터 겁탈당해서 怨死한 <불랫낭할망당>의 박씨 처녀와 <토산요드랫당>의 오씨(?) 처녀, 신분적 내지는 처첩 갈등으로 죽어간 <마느락당>의 오씨 처녀와 <호근이마루요드랫당>의 이씨 처녀, 공희 대상으로 희생된 <마라도 처녀당>의 허씨 처녀들이 처한 상황이 그것이다.

堂神들이 처했던 내·외적 상황은 이 땅에 살다가 처녀들이 처했던 상황이기에 제주 사람(특히 여성)들이 처했던 상황일 수 있다.<sup>55)</sup>

堂神이 된 처녀들은, 그들이 처한 내·외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怨死하고 만다. 恨맺힌 죽음이다. 그러기에 그들의 죽음은, 英雄의 일대기를 그리는 대부분의 설화와 古典小說들에서 작품의 轉機를 만드는 죽음이거나, 고통없이 來世로 이어지는 죽음도 아닌, 철저히 恨을 품은 죽음이다.

그들의 怨死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凶驗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드디어 신앙민들은 '굿'의 수단으로 처녀의 怨恨을 풀어 주고, 홍험의 얽매임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처녀의 원령은 堂神 내지는 祖上神(日月祖上)으로 모셔지게 된다. 처녀당신들은 홍험을 통하여 신앙민들로부터 얻어먹으며 살아가는 신이기에 위대한 신화의 주인공<sup>56)</sup>임을 철저히 거부한 처량한 신, 한맺힌 신, 그 신을 모시는 신앙민들과 똑 같은 신으로 존재할

注 55) 堂神이 처했던 내·외적 상황이 제주 여성들이 공통으로 처했던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근거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56)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知識産業社, 1977), P. 254.

뿐이다.

그러므로 처녀당 본풀이 전개는, ‘出生-追放·行脚 司祭選定 坐定’으로 이어지는 제주도 여러 당본풀이 구성과 조금 양상을 달리하며, 한국 신화 내지는 일부 고대소설의 공통유형으로 이어지는 ‘出生 -죽음-勝利’의 「英雄의 一生」<sup>57)</sup> 구조와도 양상을 달리한다.

## 2. 처녀당 본풀이들의 形成要因

한껏 죽은 처녀의 怨靈을 堂神으로 모시고 奉祭하는 것이 信仰民들의 삶의 입장과 태도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앞 장에서 처녀당 본풀이의 공통구성을,

- ① 狀況 提示部
- ② 怨死部
- ③ 伸冤部
- ④ 坐定部

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본 장에서는 ①의 内·外的 狀況을 분류하여 처녀가 어떠한 動因으로 怨死를 했으며, 堂神으로 坐定하게 되었는가 하는 당본풀이 형성 요인을 살펴 보고자 한다.

처녀당 본풀이를 죽어서 堂神이 된 처녀들의 内·外的 狀況에 따라 분류하면,

첫째; <볼랫낭할망당>, <토산야드랫당>의 경우처럼 倭侵에 의한 怨死.

둘째; <현씨일월당> 처럼 國馬進上에 따른 경제적 수탈과 빈곤으로 야기된 怨死.

셋째; <마느락당>, <호근이마루야드랫당>의 경우처럼 양반의 횡포나 신분적 갈등으로 빚어진 怨死.

넷째; <마라도 처녀당>의 경우처럼 地理·風土的 악조건에 供犧의 제물이 된 怨死로 나눌 수 있다.

---

注 57) 趙東一; 윗책, P. 256.

한땀혀 怨死한 처녀를 堂神으로 좌정시킨 신앙민들의 관념 속에는 ‘(恨을 가진 신령)이라는 생각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한을 동시에 의미, 58) 할 뿐만 아니라, 堂神들이 생존시에 처했던 역사적 상황과 원한을 품은 사령을 堂神으로 모시고 奉祭해 온 신앙민들의 역사적 狀況을 同一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처녀당 본풀이 形成의 역사적 원인들은, 그 본풀이 자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 그 堂神을 신앙해 온 신앙민의 입장과 역사적 피해의식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선 堂神들이 처했던 내·외적 상황과 본풀이 형성 요인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 1) 倭 侵

제주도는 倭의 침략을 수없이 받아왔다.<sup>59)</sup> 왜침에 시달려 온 제주 사람들은 왜침에 대하여 체념 상태에까지 이른다. ‘서귀포에 왜배나 들어라 / 먼 댁 친척 만나보게’ 하는 사설의 민요가<sup>60)</sup> 불리워질 정도다. 왜적이 침략해 옴으로써 친척이 사는 마을로 피난 온 삼촌이나 형제간을 만나보겠다고 한다. 왜침에 대한 체념의 역설적 표현이다.

왜구들이 저지른 행악은 어선의 약탈 도주,<sup>61)</sup> 도민들을 납치하여 自國으로 데려가는<sup>62)</sup> 등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아낙네와 어린애들

注 58) 李符永; “원령전설(怨靈伝説)과 한(恨)의 심리”, 伝統社会의 民衆芸術(민음사, 1980), P. 101.

59) 金尚憲; ‘南槎錄’, 耽羅文献集(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P. 132.

(我太宗六年閏七月倭賊來侵 自旌義列艦至島 安撫使李元恒 判官陳遵 領兵船往擊之 賊乃退 倭艘非獨此舉 在高麗忠惠王後二年 寇旌義 翌年帥七百余艘來侵 忠定王三年 寇貴日 恭愍王元年 寇犯叱浦 八年侵大村 幸禡二年 大孥來侵 我朝太宗元年 寇郭支 四年寇高內及明月 六年寇此島 八年寇都近川 十八年八牛叱屯 犯叱浦 遮婦浦等地 文宗元年 又入寇……)

60) 金榮敦; 「濟州島民謡研究(上) 자료편」(一潮閣, 1965), 例謡 799.

61) ‘明宗實錄’ 卷十三, 七年壬子六月條 參照.

62) ‘世宗實錄’ 卷一〇二, 二五年癸亥十月條, “歧島倭剽掠濟州船廬人物臣等 請教弘及光嚴力凶刷還教弘等移文志佐佐志刷之到博多聞被虜男女共七名在”

까지 죽였다.<sup>63)</sup>

倭賊들로부터 겁탈당한 처녀의 怨靈을 堂神으로 모시는 朝天面 新興里와 表善面 兎山里는 어느 지역보다 왜침당하기가 쉬운 곳이어서 그 피해가 막심했었음을 다음의 기록에서 짐작할 수 있게 된다.

旌義峯城内甗無泉脉域南有川水深不渴可移域於此…… (가점 필자)

제주도 해안에 모래사장이 형성된 곳에는 자연적으로 浦口가 형성되기 마련이어서 늘 왜선들이 정박하고 있었으나,<sup>65)</sup> 관에서는 미처 손쓸 수 없었고, 위 기록에서 보면, 왜적들은 식수를 얻기 위하여 生水가 나는 곳에 자주 침입하니, 그들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守城을 생수가 나는 지역으로 옮기도록 조정에 건의한 내용이다.

<불랫낭할망당>이 있는 朝天面 新興里는 해안이 모래사장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마을 안에는 가뭄에 구애받지 않는 생수(‘큰물’이라고 일컫음)가 있어 왜적의 내침을 받기는 어느 곳보다 손쉬운 곳이다. 또, 이 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해 오면서 堂祭도 司祭해 온 제보자의<sup>66)</sup> 말에 의하면, 왜구들이 이 마을 모래사장에 와서 배를 세워 놓고, ‘큰물’에 와서 물을 길어가는 것을 어렸을 때도 목격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불랫낭할망당> 처럼 왜적들로부터 겁탈당하여 죽은 처녀의 怨靈을 堂神으로 모시는 表善面 兎山里 또한 지리적으로 왜침이 손쉬운 곳이다. 현재 城山邑과 表善面 일대에서 가뭄에 구애없이 생수가 나는 곳은 兎山里에 위치한 ‘저슨샘’ 뿐이다. 기록에 ‘城南有川不深不渴’한다는 샘은 지금의 兎山里에 위치한 ‘저슨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 당시 왜침을

注 63) ‘世宗實錄’ 卷六一, 十五年 癸五閏八月條. “并婦人小子尽殺之可也……今之倭寇何辺境殺掠濟州之人無異庇仁之賊”

64) ‘世宗實錄’ 卷九十九, 二十五年癸亥正月條.

65) ‘正祖實錄’ 卷二十九, 十八年甲寅二月條.

66) 부록 참조.

막기 위하여 城을 둘러싼 旌義縣 남쪽에 생수가 나는 곳은 바로 이 샘 뿐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샘에서 솟는 물은 이 마을 해변까지 흐르는데, 당 본풀이에도 나타나듯이 그 흐르는 물이 고여 ‘울리소’를 이룬다. 이沼에는 지금도 빨래터로 사용되고 있다. 당본풀이에 왜적들로부터 겁탈당하여 죽어 堂神이 된 처녀는 바로 이沼에서 빨래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위의 두 마을에서 왜적들로부터 침해받은 주체는, 그들로부터 겁탈당한 후 죽어서 堂神이 된 처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시대를 살았던 마을 사람들에게도 확산되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 신앙은 전 마을로 파급된다. 이것은 왜적들로부터 받은 피해의식에서 오는 맺힘(恨)의 확산을 의미한다. 그것은 역사적 피해의식에서 온 神人共同의 恨이다.

<불랫낭할망당>이나 <토산유드랫당>의 처녀 원령이 좌정해 있는 곳은 마을 공동의 적인 왜구로부터 받은 피해의 현장이다. 바로 그 현장에 堂은 위치하고 祭儀도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신앙민들은 堂의 제의를 통하여 가슴에 맺힌 응어리(恨)들을 풀어나가는 것이다.



## 2) 國馬進上

제주도 여성들의 삶의 과정은 還海天險의 立地성과 탐관오리들의 收奪과 賦役, 다른 민족의 侵奪에 따른 대내외적인 역사성으로 말미암아 파란만장했다.

<현씨일월당>의 경우, 堂神의 怨死는 다른 처녀당들에 비해 다각도로 풀이되어야만 할 것 같다.

玄氏日月堂神이 怨死한 직접적인 원인은 오빠의 죽음이다. 누이의 巫病의 고통을 덜어주려 出他한 進上船의 破船은 본도의 男丁들이 해상에서 죽음으로 인한 제주 여성들이 겪는 고통과 원한의 징표이기도 하다.

我州 在大海中 波濤視諸海 尤為凶暴 貢船商船 絡繹不絕 漂流沉沒 十居五  
六 州人不死於前 故境中男墳最少 閭閻之間女多三倍於男 為父母者生則必曰 是善

孝我者 生男則皆曰此物我兒 乃鯨 之食也云<sup>67)</sup> (가점 필자)

진상선의 침몰은, 당시 중앙 정부로부터 겪는 제주 사람들의 어려운 삶을 나타내 준다. 그러한 외부로부터의 침탈이 <현씨일월당> 본풀이에서는 두 오누이의 恨으로 응결되어 있다.

가난으로 부모가 먼저 죽고 巫病의 Trauma 的 苦痛<sup>68)</sup>을 당하는 사주 팔자를 지닌 처녀는 國馬進上을 위해 出陸한 오빠가 巫具와 巫服을 구해 줌으로써 生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오빠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는 살아 뵈을 하료!’ 한탄하다가 이 마을에 있는 봉수대에서 떨어져 죽는다. 현씨 처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질병·가난·오빠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삶을 끝낸다.

玄氏 처녀의 怨死는 一族沒死의 怨이다. 한 가족의 죽음은 어떠한 경우든 가난이나 질병이나 貢物船의 破船 등 자기가 처한 사회적 병폐와 관련이 깊다. 그러므로 <현씨일월당> 神의 입장은 신앙민들로부터 동정을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본도 여성들은 불우한 환경여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갖 고통을 무릅쓰고 밭농사는 물론 바다에 몸을 던져 해산물을 채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삶들이었다. ‘여자로 날 바엔 쇠로 나주,<sup>69)</sup>’가 본도 여성들의 삶의 고통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공적 배경에서 살아 온 제주 여성들이 노동의 과정에서 불리워지는 민요들에서 다음의 사설들이 주목될 만하다.

注 67) 金尚憲; ‘南槎錄’, 위 耽羅文獻集, P. 54.

68) 金烈圭; 「韓國神話와 巫俗研究, (一潮閣, 1978), PP. 133~134  
참조.

69) 高在奐; “濟州島의 女性俗談”, 국어문학 86 (국어국문학회, 1981),  
P. 270. .

- |   |       |                       |            |        |
|---|-------|-----------------------|------------|--------|
| ① | 날이 웃영 | 구월이라나                 | 語釈 : 날이 없어 | 구월이더나  |
|   | 돌이 웃영 | 구월이라나                 | 달이 없어      | 구월이더나  |
|   | 전생 곳언 | 구월에 나난                | 전생 곳어      | 구월에 나니 |
|   | 구엿꽃이  | 내 벗이라라 <sup>70)</sup> | 국화꽃이       | 내 벗이더라 |
| ② | 저례가는  | 심방광 정시                | 語釈 : 저리 가는 | 무당과 지관 |
|   | 이내 스주 | 꼴리어 도라                | 이내 사주      | 가리어 달라 |
|   | 원천강의  | 팔즈여 흥건                | 원천강의       | 팔자라 거든 |
|   | 우널지도  | 말아근 가마 <sup>71)</sup> | 우널지도       | 말아서 가마 |
| ③ | 동네 근방 | 사름덜아                  | 語釈 : 동네 근방 | 사람들아   |
|   | 칭원훈 중 | 누게 아코                 | 원통한 줄      | 누구 알꼬  |
|   | 나 가슴은 | 늘 맥혔져 <sup>72)</sup>  | 내 가슴은      | 늘 막혔네  |

위의 例謠들은 제주 여성들이 혼자서, 또는 여럿이 맷돌을 굴리는 노동의 현장에서 불리워지는 맷돌노래의 일부다. 맷돌을 굴리는 노동은 여성들의 전유물이며, 그 노동의 과정에서 불리워지는, 제주도 여성 공동으로 창작되고, 공동으로 향유되는 口碑物이기에 위의 例謠에서 나타난 사설의 내용들은 제주 여성들의 삶의 역사를 잘 표출하고 있다 하겠다.

①의 例謠에서 보듯이, 제주 여성들은 9월에 태어났노라고 자처하는 경우가 많다. 9월에 태어났기에 八字가 남들처럼 좋지 못하다 하고, 前生の八字가 좋지 못하여 9월에 태어났노라고 노래한다.

그러나, 9월에 태어났노라고 자처하는 그들은 반드시 9월에 태어난 사람들 만은 아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모습을 <초공본풀이><sup>73)</sup>에나 <현씨일

注 70) 金榮教 ; 위 자료집, 例謠 173.

71) 同上, 例謠 134.

72) 同上, 例謠 172.

73) 玄容駿 ; 위 자료집, P. 162 참조.

월당> 본풀이에 투영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합격했으나 천민의 아들이라는 신분적 제약 때문에 심방이 되어야했던 삼형제(삼맹두)의 태어난 달과 상통하며, 심방의 팔자를 갖고 태어났으나 그것마저도 제대로 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진상선을 타고 가던 오빠의 죽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玄氏日月神을 위한 祭日과 상통한다. 다같이 '9월에 출생한 八字'의 공감대를 이룬다.

巫祖神의 아들 '삼맹두'나 玄氏日月神, 또 그 신을 신앙하는 신앙민들의 모습들이 한결같이 ③의 例謡처럼 가슴에 응어리(恨)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은 ②의 例謡에서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곧 巫祖神이나 玄氏日月神, 신앙민들의 삶의 역사가 험난하여 그들은 '원천강(遠天綱)의 八字'와 흡사하다고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 여성(신앙민)들의 八字는,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무조신의 아들 삼형제는 계급적 제약 때문에, <현씨일월당>의 현씨 처녀는 巫病 때문에 심방이 되어야 했던 사실과 공감대를 이룬다. 그래서 그들은 遠天綱과 같은, 곧 심방의 八字와 같은 서러운 八字를 갖고 태어났다고 노래한다.

제주도 여성들의 삶의 과정(歷史)에서 가슴에 맺힌 응어리(恨)들을 풀 수 있는 매체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자신들보다 더 차량한 神을 봉제<sup>74)</sup>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恨을 풀어 온 堂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맺힌 한을 풀어오는 과정에서 제주도 堂神話는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근거에는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제주도 역사만이 갖고 있는 時空的 惡條件들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 3) 身分的 葛藤

양반들의 횡포로 인한 제주 여성들의 恨을 話素로 하는 처녀당 본풀이는 <호근이마루드랫당>과 <마드락당>을 들 수 있다.

<호근이마루드랫당>의 堂神인 이씨 처녀는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났으

注 74) 玄吉彦; 「제주도의 장수설화」(弘盛社, 1981), P.46 ~ 59 참조.

으나 십방의 八字를 타고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어느 날 旌義峯(현재 表善面 城邑里)에 갔다가 ‘호근이마루(현재 西婦浦市 好近洞)’에서 旌義峯에 留郷座首로 온 吳座首를 만나 百年言約을 맺었으나 오좌수는 본 처가 있는 고향으로 달아나 버린다. 결국 이씨 처녀는 好近里를 찾아 갔으나 학대를 받는다. 그녀는 혼자서 好近里에 살면서 타고난 天綱의 八字대로 本郷堂을 司祭하는 매인십방 노릇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어 怨靈이 된다. 그러므로 <호근이마루9드랫당> 형성의 근원적 요인은 妻妾關係에서 벗어난 葛藤이라 할 수 있겠다.

제주도의 女多男少現象은 출생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역사의 수난에 의한 남자 수의 감퇴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75)</sup> 그 원인은 倭侵에 의한 男丁네들의 피살과 賦役, 軍役に 따른 희생으로 저주받는 땅으로 전락하면서, 그 결과 陸地部로 離島하는 현상까지 겹쳐 남자의 수효는 줄었는데,<sup>76)</sup> 이러한 女多現象으로 거지와 중들도 겁을 거느릴 정도로<sup>77)</sup> 一夫多妻의 역사적 불가피성을 드러낸 때문이다.

<마느락당>의 경우는, 堂神이 된 오씨 처녀를 능욕한 선비가 누구인지도 명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신앙민의 신앙도가 약해지면서 망각되어가는 堂이라는 점이다. 이 당이 신앙되고 있을 당시에 玄容駿님에 의하여 채록된 본풀이<sup>78)</sup> 에서도 한 처녀가 가혹한 양반의 횡포로부터 능욕당하고도 그 가치를 획득하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고 怨死했다고 했는데, 다른 처녀당 본풀이 구성 전개와는 달리 怨靈이 伸冤을 요구하는 轉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제주 여성들로부터 신앙되던 堂이 사라지게 되는 원인은 신앙민의 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느락당>의 오씨 처녀도 姓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注 75) 注 67) 참조.

76) 金泰能; “濟州民의 流亡과 出陸禁止”, 제주도 27호(제주도, 1960), pp. 103 ~ 106 참조.

77) 李元鎮; ‘耽羅誌’, 위 耽羅文獻集, P. 214.

78) 玄容駿; 위 자료집, P. 773 참조.

점으로 볼 때, 이 땅에 살다간 역사적 인물임은 분명하다.

처첩간의 갈등과 가혹한 양반들의 횡포로 怨死하여 堂神으로 奉祭받는 堂神의 恨은 바로 제주 여성들의 恨과 상통하는 점은 다음의 例謠에서나 文獻記錄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① 정네 가심	색이는 놨은	語釈: 정녀 가슴	색이는 놨은
여뀌 밥에	소금 장 먹영	여뀌 밥에	소금 장 먹어
대천 바당	가운디 들영	대천 바다	가운데 들이
물을 그렁	거꾸로지라 <sup>79)</sup>	물을 끓어	거꾸로져라

② 이령좌수	첩 들지 말라	語釈: 유향좌수	첩 들지 말아
산매목즈	밋으로 가라 <sup>80)</sup>	산마목자	본처로 가라

③ 濟州之俗以其公私婢子與良家之女稱為遊女記名於簿使之如官婢問其所由則

曰此輩見商賈人淫奔微利以亂其配役之如此者所以示懲戒禁淫風也

臣謂此輩未被汚名尚畏人知或可改行及其載名官簿恣行無忌且好引朋類或挾恨或風聞指稱某女奸某人互相援引入官亦甘心於役使不卞真偽籍於遊女是非唯不禁淫風乃勸之也 (가점 필자)

위의 例謠는 첩을 거느려 사는 남편을 저주하는 사실의 민요와 留鄉座首의 첩이 될 바엔 차라리 자신들의 처지와 비슷한 牧者(배우리)의 본처가 되겠다고 노래한다. 이는 곧 양반들의 횡포에 능욕당해 온 제주 여성들의 恨을 形象化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③의 기록은 世宗 9年(1427) 6월 10일에 제주 察訪 金為氏이가

注 79) 金榮敦; 위 자료집, 例謠 387.

80) 金榮敦; 위 자료집, 例謠 559.

81) 世宗實錄' 卷三十六, 九年丁未六月條.

제주 풍습의 弊端을 조정에 보고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주 여성들은 남편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와 간통했다는 죄목으로 무조건 官에 끌려갔고, 官에서는 그 眞否를 가리지 않고 官婢나 妓女가 되기를 권하여 ‘遊女’로 入籍해 버린 弊習을 지적하고 있다.

良家の 딸들이면서 ‘遊女’로 낙인 찍혀 官婢가 되거나 官妓가 되어 賤民으로 전락해야 했던 제주 여성들의 恨은 堂神들의 恨과 일치된다. 그러기 때문에 信仰民들은 신분적 갈등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怨靈들을 堂神으로 모셔 慰撫하면서 동시에 堂神의 처지와 같은 자신들의 恨을 푸는 과정에서 <호근이마루오드랫당>과 <마느락당>의 본풀이가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 4) 人身供儀

<마라도처녀당>은 주민들이 馬羅島에 살기 위하여 移住해 보니, 供儀의 대상물이 되어 怨死한 처녀의 屍身이 현재의 堂 위치에 남아 있어서 그 때부터 堂神으로 모신 데서 비롯된 당이다.

이 堂은 住民들에게 닥아 올 흉험을 미리 막기 위한 수단으로 奉祭를 받는다. 이것은 저주받은 땅, 척박한 땅에서 겪는 지리적 악조건에서부터 오는 犧牲이다. 마라도의 주민은 인근 마을에서 살다가 삶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絶海孤島인 마라도로 이주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리적 악조건에서 그들이 받아 온 희생을 대변하는 아기엄저지 허씨 처녀의 怨靈을 본향堂神으로 奉祭함으로써 自然과의 和解를 祈求하는 것이다.

이 堂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金氏, 羅氏, 韓氏등 최초의 이주민이 馬羅島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비롯된다.<마라도처녀당>의 堂神과 信仰民의 관계는 풍토적 악조건에 희생당하고 신앙민들로부터 봉제받는 堂神의 입장과, 풍토적 악조건에 언제나 희생의 여지를 갖고 있는 신앙민의 관계다.

金榮敦님에 의하여 채록된 한 해녀(김영부, 여. 53)의 민요 중에는, 허

씨 처녀가 馬羅島에 가게 된 동기에서부터 怨死하여 堂神이 되기까지의 본풀이를 부른 다음, 제보자 자신의 삶을 叙事民謠 형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제보자 자신의 신세를 前生八字가 좋지 못하여 ‘두렁박’<sup>83)</sup>을 ‘타 다니는 칠성판’<sup>84)</sup>으로 悲嘆하고 있다.

어떤놈은 으흐	나는아긴 <sup>①</sup> 이히
팔조전성 으흐	요리좋아 아하
고디광실 <sup>③</sup> 이히	높은집이 이히
부귀영화 아하	누리고야 아하
살전마는 으흐	우리부모 오흐
나신아긴 이히	두렁박이 <sup>④</sup> 이히
종소가 아하	웬일이냐 히
이기야마라 히	이기야마라 히 <sup>85)</sup>

[注 : ①태어나는 아기는. ②八字前生. ③高台広室. ④本考 注. 83)

참조]



前生八字가 좋아서 高台広室 높은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사는 자식들과, 八字前生이 좋지 못하여 ‘두렁박’에 의지하여 자연적 악조건으로부터 늘 희생당할 여지를 갖고 있는 해녀인 자신들의 신세가 대칭된다. 여기에서 ‘두렁박 신세’인 제주 여성들의 입장과 자연적인 악조건으로 희생되어 堂神으로 숭앙되는 허씨 처녀의 입장은 동질성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처녀 堂神들이 처했던 内·外的 倭侵을 정래해 보면 倭侵으로부터 겪은 피해, 貢物로 희생되어 온 제주 사람들의 처참한 삶.

注 83) 海女器具의 하나·박의 씨통을 파내서 말리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바다에서 작업할 때 타서 헤엄치는 물건으로 ‘데왁’이라고도 한다.

84) 金榮敦; 위 자료집, 例謠 833.

85) 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2, 1981」, 제주도 삼도동 민요 15참조.

처첩 간의 갈등, 가혹한 양반들의 횡포, 음란하고 부도덕한 계급사회에서 능욕, 지리적 악조건에의 희생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러한 堂神들이 처했던 狀況은 제주 사람들(특히, 여성)이 처했던 역사적인 피해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며, 이것은 처녀당 본풀이 형성의 주된 要因이 되는 것이다. 怨靈이 좌정해 있는 위치가 제주 사람들 공동의 적인 왜적들로부터 받은 피해의 현장이며 그곳에 부락神이 존재한다든가, 한 처녀의 죽음으로 한 가족이 몰락하는 生離別 모티브를 통하여 貢物에 희생되어온 제주 사람들의 삶의 일면을 투사한다든가, 怨靈의 恨을 慰撫하고 나아가 信仰民들이 정신적 상황을 원령과 대등한 입장에서 나눠갖는 것은 堂神과 제주 여성의 운명을 공동으로 파악함으로써 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祭儀를 통하여 神과 인간의 갈등은 해소되고, 역사적 상처가 神人共同으로 慰撫되는 것이다. 祭儀 속에서 맺힌 한을 푸는 呪術的 行為, 예를 들면 토산우드랫당곳의 '방울뚝'은 맺힌 한을 해소하는 원리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다.(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짐) 이와 같이,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는, 제주 여성들 공동의 恨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본도의 女性史, 민중사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제주 여성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恨)들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堂神들을 奉祭하는 것이며, 이것이 처녀당과 그 본풀이 형성의 근원적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Ⅲ. 처녀당 祭儀와 意味

제주도 巫俗儀禮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玄容駿님의 「濟州島 巫俗儀禮 研究」<sup>86)</sup>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고, 마을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치뤄질 수도 있는 堂祭 자체를 祭儀의 側面에서 연구된 바는 없는 듯하다.

본 장에서는 처녀堂祭의 규모에 따른 類型的 特徵을 살피고, 그 제외에 표상되는 의미를 찾아보자는 것으로, 당본풀이 해석을 위한 제의적 접근에 지나지 않는다.

#### 1. 처녀堂祭의 類型的 特徵

玄容駿님은 제주도 巫俗儀禮를 형식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① 基本形式儀禮 : 초감계, 초상계, 젓상계, 도진 등.
- ② 迎神儀禮 : 불도맞이, 일월맞이, 초공맞이, 이공맞이, 삼공맞이 (전상놀이) 등.
- ③ 神話儀禮 :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등.
- ④ 聖劇儀禮 : 세경놀이, 전상놀이 (삼공맞이) 등.
- ⑤ 其他儀禮 : 푸다시 (逐神儀禮), 녀들임 (入魂儀禮) 등.

① 基本形式儀禮는 신을 祭場에 請神하는 것에서부터 送神하기까지의 의례인데, 그 때는 신을 수직적으로 下降시켜 기원하는 형식의 것이고, ② 迎神儀禮는 ‘~맞이’ 굿이라 불리워지는 것들로, 신을 수평적으로 來臨시켜 맞이하고 祈願하는 형식의 굿이다. ①과 ②의 의례에서 본 신의 출현 형

注 86) 濟州大學 論文集 7輯, 1976, pp. 93~118.

87) 玄容駿; 윗글, P. 96.

식은 수직과 수평의 대조를 이룬다. ③ 神話儀禮는 굿의 과정에서 본풀이를 하게 되는 사유와 본풀이를 시작함을 신에게 고한 후에 본풀이를 맏하고, 이어서 기원의 내용을 신에게 전하는 형식의 것이고, ④ 聖劇儀禮는 ‘~놀이’라고 불리워지는 것들로 신화적 사실, 또는 신화 내용을 극적으로 実演하는 類感呪術의 성격의 의례형식인 것이다.

이상, 형식적인 면에서 분류한 제주도 무속의례의 유형들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행해지는 무속의례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마을 공동으로 행해지는 당굿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의 의례는 행해지게 된다. 그것이 마을 공동으로 의례가 행해지느냐,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행해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당굿인 경우는 일반 가정에서 행해지는 무속의례처럼 基本祭次는 같다고 하더라도 그 양상이 똑 같지 않다. 堂神의 성격에 따라 제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堂神의 신분이 僧인 경우에는 그 신을 祭場에 청해들이기 위하여 심방은 승복을 입고 승의 흉내를 내야 되며, 88) 堂神의 신분이 목동인 경우에는 심방은 목동의 복장으로 차려 입고 소를 끌고다니는 흉내를 내야 하는데, 89) 전자의 것을 ‘중놀이’, 후자의 것을 ‘말(馬)놀이’라 한다. 곧 신의 성격에 따른 신의 행위를 再演하는 類感呪術의 의례인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마을마다 모셔지는 堂神들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처녀당神을 위한 의례에서도 그 성격이 특이하기 때문에 의례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게 마련이다.

堂에서 행해지는 의례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속의례의 기본제차와는

注 88) 北濟州郡 旧左邑 杏源里 당굿(음, 10월 15일)에서는, 本郷堂神의 신분이 僧이기 때문에 심방은 승복을 입고 神이 堂으로 來臨하는 흉내를 낸다.

89) 北濟州郡 旧左邑 연평리(牛島) 本郷堂神의 신분은 牧童인데, 당굿(음 2월 14일)이 벌어지면, 심방 두 사람이 목동의 복장을 하고 닭에다 명주로 코를 꿰 다음 섬 한바퀴를 끌고 다니는 시늉을 보인다. 여기에서 닭은 소를 대신한 것이다.

비슷하면서 신의 성격에 따라 의례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堂祭의 유형은 그 규모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똑 같은 堂神을 위하여 당제를 올릴지라도 그 규모가 큰 것은 ‘당굿’이라 하고, 규모가 작은 것은 ‘앞인제’라고 한다. ‘앞인제’는 앉아서 치루는 당제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이렇게 소규모로 행해지는 당제를 놓고 ‘당굿’이라 칭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전자를 대규모 제의, 후자를 소규모 제의라 칭하고 싶다.

그러면 똑 같은 堂神을 위하여 행해지는 당제일지라도 대규모의 제의인 ‘당굿’과 소규모 제의인 ‘앞인제’는 어떻게 다른가? 또 처녀당의 대규모의 제의와 소규모의 제의는 어떻게 행해지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를 일반 堂祭와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마을마다 행해질 수 있는 대규모 제의인 당굿을 치루기 위해서는 당굿을 치루기 전의 금기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마을 주민 공동으로 참여 한다. 어느 마을의 당굿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전 신앙민들이 돼지고기 먹기를 금하고,<sup>90)</sup> 이웃과 사소한 언쟁이라도 삼간다. 혹 마을에 喪事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의가 연기될 정도로 당굿 전의 금기는 전 마을에 파급된다. 이렇게 금기된 생활 속에서 제의를 준비하게 된다.

심방 또한 당굿을 치루기 전의 금기는 신앙민들보다 더욱 대단하다. 제의 전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喪家에 가기를 금할 정도다. 만약 심방이 상가에 나타나게 되면, 신앙민들은 그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할 정도다. 神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을 일상에 내재하는 규율을 극단이랄 정도로 강조된 행위를 통하여 일상성을 초월하는,<sup>91)</sup> 그래서 髣스러운 祭儀의 세계로 향하는 몸짓이라고 할 수 있다.

注 90) 城山邑 三達里에서 당굿(정월 扨日)을 치루기 위해서는 전 마을 주민들이 정월 명절날 깻상에·돼지고기를 올리지 않는다.

91) 藺田稔; “祭—表象の構造—”, 日本人の宗教(日本: 佼成出版社, 昭和十七), P. 260.

祭日에는, 마을의 厄을 막기 위하여 堂神에게 바쳐질 ‘팔찌거리’, 신의 下降路를 상징하는 ‘본향드리’, 本郷床에 올릴 祭物 등을 공동으로 준비한 것 외에, 개별적으로 祭物을 준비하고 당에 간다.

매인심방은 큰굿 때 입는 巫服처럼 ‘군복차림’<sup>92)</sup>을 하게 되고, 북과 징 등의 巫具를 올릴 小巫 몇 사람을 대동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대규모 제의인 ‘당굿’은 마을 공동으로 치뤄지고 있다. 그러나 처녀堂神을 위한 대규모의 제의는, 마을 사람들이 堂을 공동으로 모시면서도 처녀神을 집안에 청해다 놓고 신앙가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흔하다.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 신앙이 대단한 ‘토산9드랫’ 堂神, 玄氏日月堂神, ‘호근이므루9드랫’ 堂神을 위해서 행해지는 소규모 제의(앉인제)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堂祭와 같이 공동으로 奉祭될 수는 있어도, 대규모 제의는 공동으로 치뤄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처녀당들이 일반 가정 내지는 一族에서만 모셔지는 祖上神的 성격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며, 아직은 本郷堂神으로 자격을 완전하게 획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堂神이면서 개별적으로만 치뤄지는 대규모 제의는 ‘토산9드랫당’ 神, 玄氏日月神, ‘호근이므루9드랫당’ 神을 위한 것이 대표적으로 현재까지 행해지고 있다. 그 중 토산9드랫堂神을 위하여 信仰家에서 행해지는 대규모 祭儀 祭次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sup>93)</sup>

1. 삼친뽕맷대 세움

2. 초감제

베포도엄침 - 날과 국섬김 - 연유담음 - 군문열림 - 신청케 - 새드림 - 산받아  
분부사됨 - 주잔넘김 - 다음 祭次로 넘김

3. 추불공연

4. 석살림

注 92) 玄容駿; “濟州島 무당굿놀이 概觀”, 文化財 2 (文化財管理局, 1966), P. 144 그림 참조.

93) 이 祭次는 玄容駿 교수님의 「위 자료집 (PP.545 ~ 572)」에 준함.

석을 킴-상축권상-여드랫당 본풀이

5. 방울 (劇的儀禮) - 산받아 분부사뵈 - 주잔넘김 - 상축권상 - 다음 祭次로 넘김.

1. '삼천뽕맷대 세움'이란 신의 수직적 下降路를 상징하는 '큰대'를 세우는 것이요, 2. 초감제는 우주개벽에서부터 역사의 형성과정을 歌唱하고, 현재 제를 지내는 장소까지 노래한 다음에 신을 청해들이게 되는 의식인 것이다. 3. 추물공연은 신을 청하여 좌정시킨 후, 차려 놓은 음식을 잡수 십사고 권하는 의식이요, 4. 석살림은 신이 살아오도록 요란한 巫樂에 맞춰 춤추는 것이다.<sup>94)</sup> 석살림이 끝난 후, 堂神이 어떻게 하여 怨死하고, 堂神으로 좌정하기까지의 來歷인 본풀이를 唱하게 된다.

1에서 5까지의 祭次가 끝난 후에는 다른 祭次 내지는 儀禮가 있을 수 있겠으나, 마즈막에는 送神하는 '도진祭'를 올려 끝을 맺는 경우가 많다. 어느 처녀堂神을 위한 대규모 제의에서건 이러한 제차에서 대체로 4. 석살림 중에 나오는 본풀이와 堂神의 성격에 따라 행해지는 劇儀禮의 양상들이 다를 뿐이다. 여기에서 玄氏日月堂神과 호근이뽕우드랫堂神을 위한 적극적 제의 중의 劇儀禮에서는 제주 특유의 '서우젓소리'를 부르며 怨靈의 처녀신을 흥겹게 하므로써, 堂神의 恨을 풀며 동시에 신앙민들의 恨을 풀지만, <토산우드랫당>의 한풀이 광경은 即物的으로 표상화된다.(恨의 即物的 표상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다음 절에서 다루짐)

堂祭의 규모에 따라 堂祭의 유형을 분류해 볼 때, 대규모 제의인 '당굿'과 소규모 제의인 '앉인제'로 구분할 수 있었다. 당굿의 제차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행해지는 굿의 제차와 다를 바 없으나, 제의 과정에서 표출되는 극적 양상은 처녀堂神은 물론 여타 堂神들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처녀당을 마을 공동으로 (또는, 일부 주민) 모시면서도 처녀堂神을 위한 대규모 제의는 개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一族 내지는 一

注 94) 큰굿 제차의 자세한 설명은 玄容駿 교수님의 「위 자료집(1980)」 중에서 事項說明(PP. 858 ~ 90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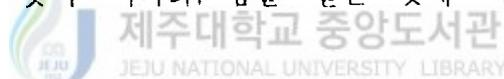
家에서만 모셔지는 조상신(日月祖上)이, 그 家系가 父系 또는 母系로 벌어지면서 신앙 세력이 확산된 본향당으로 변하는 과정의 堂들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처녀堂神을 위한 소규모 제의(얹인제)는 어떻게 치뤄지는가를 玄氏日月堂祭의 경우를 들어 알아보자. <sup>95)</sup>

1. 날과 국섬김
2. 예명올림
3. 본풀이
4. 산판점

1. 날과 국섬김은 堂祭를 올리는 날짜와 장소를 神에게 알리는 대목이요, 2. 예명(列名)올림은 글자 그대로 신앙민들의 姓과 연령을 神에게 列名하여 고하는 祭次다. 이 두 제차 다음에 堂神의 來歷譚인 본풀이가 歌唱되어지게 된다. 이 후에 쌀이나 산판으로 각자 점을 받게 된다.

이 처녀堂神을 위한 소극적 제의인 ‘얹인제’는 액을 막거나 치유하는 목적에서 치뤄지는 것이 아니라, 점을 받는 것에 치중되어 있을 뿐이다.



## 2. 맺힘과 흠의 形象化

앞에서 처녀堂神을 위한 소규모의 제의인 ‘얹인제’는 여러 堂神을 위한 堂祭와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치뤄지지만, 적극적 제의에 있어서는 다름을 보았다. 일반적으로 堂神을 위한 대규모의 제의(당굿)가 濟州 巫俗의 一般 祭次대로 마을 공동으로 치뤄진다면, 처녀당신을 위한 대규모의 제의는 개별적으로 堂神을 집안에 청해다 놓고 치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처녀堂神들이 아직도 一家 내지는 一族에서만 巫俗祭를 통하여 봉제되는 祖上神的 성격이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처녀堂神을 위한 어떤 유형의 제의건 인간으로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처녀神의 맺힌 恨을 풀어주면서, 신앙민들은 同時에 해결하기 어려운

注 95) 본고 부록 참조.

갈등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어느 경우에서건 구체적(劇的)으로 形象化되지는 않는다. 맺힘(恨)과 풀의 극적 형상화는 처녀堂神을 위한 대규모 제의에서만 나타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제주도 무속에서 처녀당신을 위한 대규모 제의는 ‘토산요드랫당’ 神, 玄氏日月神, ‘호근이마루요드랫당’ 神을 위한 것이 현존되지만, 그 중에서도 토산요드랫堂神을 위한 적극적 제의는 풀기 어려운 상징성이 수반된다.

한 神話가 祭儀에서 발생한 것이라면,<sup>96)</sup> 똑 같은 처녀 怨靈들이면서도 극적 제의의 양상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차이는 원령이 준 흥첩(?)에서 벗어나려는 최초의 제의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최초의 제의에서 본풀이와 극적 행위는 창조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기 때문에, 처녀당 본풀이와 극적 행위를 최초로 창조한 심방과 신앙민들의 창조력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똑 같은 처녀 怨靈을 위무하기 위한 제의지만, 그 양상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현씨일월堂神과 호근이마루요드랫堂神을 위한 소규모 제의인 경우는 ‘초감제-추물공연-석살림’으로 이어지는 제차 다음에 堂神에게 고운 한복과 고무신을 바치고 난 후, 神을 흥겹게 놀리는 행위(恨풀이?)가 ‘서우젯소리’에 맞춰 이뤄진다.<sup>97)</sup> 이 때 심방은 노래를 부르고, 신앙민들 모두가 굿판에서 춤춘다. 이 행위가 신의 恨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신앙민들이 처한 갈등에서 벗어나는 행위 곧 맺힘과 풀의 행위임은 토산요드랫堂神을 위한 극적 행위인 ‘방울풀’에서 구체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그것은 어느 처녀堂神이나 한맺혀 죽은 怨靈들이기 때문이다.

토산요드랫堂神을 위한 굿에서 ‘삼천벙맷대 세움-초감제-추물공연-석살림-’으로 이어지는 제차 다음에 ‘맺힘과 풀’의 극적 행위가 형상화된

注 96) S.E.Hyman: "The Ritual View of Mith and the Mythic", MYTH a symposium(INDIANA UNIVERSITY PPESS, 1955), P.138.

97) 注 50) 참조.

다. 그것이 ‘방울뿔’인 것이다.

석살림의 마지막 과정인 당본풀이가 가창된 다음에 심방은 미리 셋상에 마련해 둔 ‘방울친’ 일곱 고(방울)를 양손에 나눠 잡고 환자는 굿판 가운 데로 나앉는다. 이때, ‘방울친’은 23자 무명을 일곱 개의 고가 되게 묶여 있는 것이다.<sup>98)</sup>

심방은 ‘방울친’을 들고 ‘방울방울 상(上)방울도 내풀리자’고 외치면, 小巫들은 북·징·설쇠 등을 울린다. 심방은 그 巫樂에 맞춰 울동하면서 ‘맺힘과 뿔’의 극적 행위가 행해진다.<sup>99)</sup>

방울 방울 상(上)방울 내놀렸더니 강씨(姜氏) 아미 못쳐오던(맺어오던) 마은요듬(四十八) 상방울긋이여. [樂: 역시 방울친 들고 춤.]

강씨 아미 못쳐오던 마은요듬(四十八) 상방울 내놀렸더니 오씨(吳氏) 아미 못쳐오던 서른요듬 중방울긋이여. [樂. 역시 방울친 들고 춤]

한씨(韓氏) 아미 못쳐오던 수물요듬 하방울긋이여. [樂 역시 방울친 들고 춤]

방울 방울 두 일곱 열너(十四) 방울 내놀리자. [樂, 역시 방울친 들고 춤<sup>100)</sup>] (가집 필자)

최초로 倭賊들에게서 겁탈당하여 怨靈이 된 처녀에서부터 그 처녀 원령의 흥심으로 병에 시달린 두 처녀의 가슴에까지 맺어오던 방울긋이라고 외치며 심방은 춤춘다. 상징은 언어로 남김없이 해석할 수 없는 어떤 未知의 것에 대한 최선의 표현<sup>101)</sup>이지만, 여기에서 방울은 왜적들로부터 겁탈당한 처녀에서부터 지금 이 굿판에 나앉은 처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注 98) 고(매듭)가 4개인 경우도 있는 듯하다.

99) 본 ‘방울뿔’의 전개는 玄容駿 교수님의 「위 자료집 (PP. 558 ~ 561)」과 이 굿을 實演했던 安仕仁씨의 談에 힘입은 바 크다.

100) 玄容駿; 「위 자료집(1980)」, P. 558.

101) 李符永; 「分析心理学과 民譚」, 民譚学概論(一朝閣, 1982), P.112.

가슴에 맺힌 응어리의 상징이며, 곧 恨의 상징이다. 그것은 본풀이의 내용에서 쉽게 증명되는 바다.

그 맺힘이 窻에 앉은 한 여자에게로 이어져 흥첩에 시달린다는 관념은 다음의 사설에서 흔히 나타난다.

방울방울 두 일곱열니방울 내늘렸더니, 요 방울이 들어 놓고 이간주당(此家内住堂) 성(姓)은 X씨로 「몇살」이 못친(맺혀진) 방울이로구나.<sup>102)</sup>  
(가집 필자)

왜적들로부터 겁탈당한 한 처녀의 맺힌 응어리(恨)는 여러 처녀들에게 흥첩을 통하여 풀려왔고, 오늘에 이 집(此家内住堂) 한 처녀에게도 이어진 것이다. 원령의 맺힘이 신앙민의 맺힘들로 이어지는 그 방울은 맺힘(恨)의 形象化임이 분명하다.

환자의 아픔이 원령의 조화로 믿게 되고, 환자의 내부 속속들이 들어 있는 원령의 방울(恨)을 풀면서 동시에 환자가 고통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은, 원령의 응어리가 풀려지면서 이루어진다.

새나 새나/새나 줍서<sup>①</sup>/일천간장(一千肝臟)/일천시름이랑  
강새아미 못차오던/마은 9 톱 상방울/  
오씨아미 못차오던/서른 9 톱/중방울도 생낭갑서<sup>②</sup>/……………(가집 필자)  
[注: ①살려내어 주십시오. ②살려내어 가십시오.]

무악에 맞춰 심방이 환자 뒤에 서서 선창하면, 小巫들은 각 귀절마다 따라 부르게 되는 사설이다. 여기에서 일천 매듭으로나 맺혀 있는 듯한 일천 시름을 간직한 주체는 怨靈이면서, 동시에 환자일 수 있는 것이다. 심방은 제발 맺힘이 풀려서 돌아서길 기원한다. 怨靈의 맺힌 恨이 풀리면

注 102) 玄容駿; 「위 자료집(1980)」, P. 558.

103) 上同.

서 동시에 환자의 멧힘이 풀릴 수 있는 類感呪術的 行為인 것이다. 여기에서 환자의 멧힘은 병일 수도 있게 된다.

심방은 환자 몸의 이 곳 저 곳에다 방울을 맞대고 풀어나간다.

헛쉬<sup>①</sup>/헛쉬/헛쉬/나사/

요거 보라/방울이 口작고나/풀어내자. /

마은 9 톱 상방울이/성은 X씨로다/<몇살>님에 들었고나/풀어내자/

이 머리 아피<sup>②</sup>/갈용머리<sup>③</sup>/머리 두상 아피/

아야 머리/아야 머리/풍문제화/불러주는/

요 방울도/풀어내자/풀어 풀어/풀어내자/

늑단착에<sup>④</sup>/어깨에랑/들어 놓고/

요 방울질도<sup>⑤</sup>/풀어내자. / 104)

[注: ① 鬼를 쫓는 소리. ② 두통. 머리앓이. ③ 용의 머리. 禪龍의 뜻.

④ 오른쪽에 ⑤ 요 방울들도. 질=끼리. 여럿을 일컬을 때 붙임.]

환자의 몸에 들어서 조화를 부렸던 것은 방울이다. 방울은 원령의 응어리(恨)의 상징이다. 심방은 呪術的 行為를 통하여 환자 몸에 든 방울은 물론, 원령의 방울까지 풀어간다. 곧 왜적으로부터 겁탈당한 怨靈의 멧힘(恨)이 풀리면서 生人의 아픔도 풀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방울을 통한 멧힘과 풀의 形象化인 것이다.

이럴 때, 여타의 처녀堂祭의 의미는 멧힘과 풀의 행위임이 증명된다. 그것이 대규모의 제의인 경우는 행위적 표현이요, 소규모의 제의인 경우는 언어적 표현일 따름이다.

매듭을 통하여 상징적 의미를 표출하는 행위(呪術的 行為)는 다른 종족들에서도 宗教的 意味를 갖는 듯하다. Brown은 트로부리양섬 주민들의 민간신앙에서, 한 부인이 분만하게 될 경우에 남편은 매듭을

注 104) 上同, P. 559.

풀며 집 주위를 돌아다닌다고 한다. 이것은 매듭을 푸는 呪術的 행위<sup>105)</sup> 이면서도 그 매듭이 내포하는 의미가 <토산요드랫당> 神을 위한 ‘방울 풀’의 상징성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고는 할 수 없다.

또, 全羅道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고풀이’<sup>106)</sup>와의 구체적인 比較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注105) A.R.Radcliffe - Brown; [ Structure and Function in Primitive Society] ( LONDON: Cohen and west, 1965), P.149.

“ The taboos associated with pregnancy and partuition are often explained in terms of the hypothesis I have mentioned. A father, naturally anxious at the outcome of an event over which he does not have a technical control and which is subject to hazard, reassures himself by observing some taboo or carrying out some magical action. He may avoid certain foods. He may avoid making nets or tying knots, or he may go round the house untying all knots and opening any locked or closed boxes or containers. ”

106) ○金泰坤; 「 韓國巫俗研究 」( 集文堂, 1981), PP. 85 ~ 86.

○崔吉城; 「 韓國巫俗의 研究 」( 巫繼垂文化社, 1978), PP.274 ~ 278.

## V. 結 論

필자는 지금까지 제주도 마을마다 좌정해 있는 堂들 중에서도 처녀당만을 상대로 그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 고찰해 왔다.

처녀堂神들은 한결같이 제주도에서 살다 억울하게 죽어간 원령들로 일정한 마을에 좌정하여, 일정한 신앙민들로부터 봉제받는 살아 있는 민중들의 神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堂들마다에는 來歷譚인 본풀이가 있다.

이 본풀이들은 堂神을 신앙하는 신앙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部落神話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필자는 여러 처녀당 본풀이들마다 여러 異本들을 상대로 수평적 구성, 곧 시간적으로 진행되는 횡적 순서구조를 분석하고, 분석해낸 결과 위에 민중사적 입장에서 처녀당과 그 신화 형성의 요인을 알아 보았으며, 또 제의에 나타나는 표상적 의미도 밝혀 봤다. 그것은 맺힘(恨)과 풀(解恨)의 의미적 기능을 표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술을 총괄하여 요약·정리해 보면,

(1) 처녀堂神의 출현은 실재 이 땅에 살다가 원통하게 죽어간 怨靈들로 실재인물이다. 여러 처녀堂神들은 구체적인 姓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무덤이 있는 堂神들이 있었는가 하면(현씨일월당과 토산오드랫당의 경우), 한 처녀를 능욕하여 怨死하게 만든 인물도 찾아낼 수 있었다는 점이(호근이모루오드랫당 본풀이에 나타난 吳座首), 이를 입증한다.

그래서 처녀堂神들의 출현은, 하늘로부터 降臨하여 건국신이 되었거나, 바다 건너 먼 나라로부터 표착하여 왕후 내지는 관원이 되었다는 檀君·解慕漱·首露·脱解·朱蒙 등의 출현 모티프와는 달리, 민중 속에서 살다 억울하게 죽어 그 민중들로부터 봉제받는 민중의 神들이다.

(2) 처녀당 본풀이들의 수평적 구성은 여러 本들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달리 나타나지만, 공통구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한 처녀가 처했던 내·외적 상황 제시(起: 狀況提示部) -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한 怨死(承: 怨死部) - 凶驗을 통한 伸冤 호소(轉: 伸冤部) - 신앙민들로부터 奉祭받는 堂神으로 坐定(結: 坐定部)으로

이어진다.

그들이 처했던 내적 상황은 운명적으로 갖고 태어난 불운한 상황들이며, 외적 상황은 한 처녀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닥치게 되는 것들로, 한 처녀의 힘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는 상황들이다.

내적 상황으로는, 양반의 가문에서 심방이 되어야만 했던 八字를 갖고 태어나기도 했고(헌씨일월堂神과 호근이모루드랫당신의 경우), 守僕의 딸(ㄱ느락 堂神)이거나, 남달리 가난하게 태어나 남의 집 아기엽저지로 살아가야만 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처녀(마라도처녀堂神)들로, 그들은 한결같이 운명적으로 불운한 상황에 처했던 인물들이다.

외적 상황으로는, 倭賊들의 겁탈로부터 항거하다 죽은 처녀(박씨할망당신과 토산드랫당신의 경우), 양반들로부터 능욕당하여 신분적 내지는 처첩 갈등으로부터 죽은 처녀(호근이모루드랫堂神과 ㄱ느락堂神의 경우),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풍토적 악조건으로 희생되어야 했던 처녀(마라도처녀堂神의 경우) 들이다.

그들은 伸冤을 요구하며, 신앙민들과 함께 존재하는 한맺힌 神들이다. 곧 그들이 처한 상황들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怨死했고, 怨靈들의 요구로 신앙민들에 의하여 풀리는 맺힘(起·承)과 풀(轉·結)의 구성을 이룬다.

(3) 처녀당과, 그 신화 형성의 요인은 堂神이나 제주 여성들이 공통으로 처했던 역사적 피해의식-倭侵·進上·계급사회의 갈등·풍토적 악조건으로 인한 희생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堂神들과 신앙민들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래서, 堂神들의 恨을 풀어 주면서 동시에 신앙민들의 恨을 풀어 온 제의 과정에서 처녀당과, 그 신화 형성 요인을 짐작하게 된다.

처녀堂神들이 처했던 내·외적 상황이, 바로 제주 여성(신앙민)들이 처했던 상황과 유사함은 여러 文獻記錄들은 물론, 민중의 삶이 잘 반영된 민요들에서 증명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 처녀당 신화는 제주 여성들 공통의 恨을 함축하고 있어 하나의 제주도 女性史이기도 하며, 신앙민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비슷한 처녀 怨靈을 部落神으로 모시고, 그 원령의 맺힌 응어리(恨)를 풀어 주면서, 동시에 자신들 가슴에 맺힌 恨을 풀어 온 것이다.

(4) 처녀당신을 위한 祭儀는, 원령의 恨을 풀면서 동시에 신앙민들의 갈등(그것은 신앙민들이 처한 恨일 수도 있다.)에서 풀려나는 행위, 곧 맺힘과 풀의 劇的 形象化다.

처녀당신을 위한 祭儀는 그 규모에 따라 소규모의 제의(얕인제)와 대규모의 제의(당굿)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든 제의적 행위는 원령의 恨을 풀면서 동시에 신앙민들의 갈등에서 해소되는 행위다. 이것은 모든 제의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토산오드랫堂神을 위한 제의 중, '방울풀'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무명의 일곱 고(맺힘:방울)는 恨의 形象化다. 상징적이고 類感呪術的 행위인 '방울풀'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타의 처녀堂祭도 맺힘과 풀의 형상화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이 행위적 표현이나, 언어적 표현이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처녀堂神들은 민중 속에서 태어나 민중들로부터 봉제받는 部落神話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규명을 위해서는 國祖神話와 여타의 서사무와의 비교 연구, 제주도 堂神話의 전반적 연구는 물론, 본토 일부에서 전승되는 部落神과의 비교 연구가 요망되는 바이다.

## 參 考 論 著

三国史記

李朝実録

耽羅文献集(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金榮敦;「濟州島民謡研究(上)」(一潮閣, 1965)

秦聖麒;「南國의 巫歌」(濟州民俗文化研究所, 1968)

玄容駿;「濟州島伝説」(瑞文堂, 1977)

玄容駿;「濟州島巫俗資料事典」(新丘文化社, 1980)

玄容駿·金榮敦;「韓國口碑文學大系 9-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金泰坤·池春相·玄容駿;「靈を招く-韓國のシャーマン」(東京 國書刊  
行會, 1977)

赤松智城·秋葉隆;「朝鮮巫俗の研究 上」(大阪屋号書店, 1973)

高在奐;“濟州島의 女性俗談”,「국어국문학」36(국어국문학회, 1981)

金榮敦;“濟州島民謡에 드러난 生活觀”,「知愚辺時敏博士回甲記念論文  
集」(同刊行委員會, 1978)

金烈圭;「韓國神話와 巫俗研究」(一潮閣, 1978)

金一根;“韓國民謡의 內容分析”,「民俗學研究」(정음사, 1981)

金泰坤;「韓國巫俗研究」(集文堂, 1981)

金泰能;“濟州民의 流亡과 出陸禁止”,「제주도」27(제주도, 1960)

金和經;“西歸浦 本鄉堂 本풀이의 構造分析”,「구비문학」5(한국정  
신문화연구원, 1981)

朴晟義;「韓國古代小説과 史」(日新社, 1973)

朴用厚;「南濟州郡誌」(상조사, 1978)

李符永;“원령전설(怨靈伝説)과 한(恨)의 심리”,「傳統社會와 民  
衆藝術」(민음사, 1980)

- ；“分析心理学와 民譚”，[民譚学概論](一潮閣，1982)
- 李仁福；「韓國文學에 나타난 죽음意識의 史的研究」(悅話堂，1981)
- 張德順；「說話文學概說」(三友社，1974)
- 趙東一；“英雄의 一生，그 文學史的 展開”，[東亞文化] 10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1971)
- ；「敘事民謠研究」(啓明大學出版部，1970)
- ；「韓國小說의 理論」(知識產業社，1977)
- ；「口碑文學의 世界」(세문사，1980)
- 曹喜雄；“說話發生論”(서울大 文理大學報 24，1969)
- ；「朝鮮後期 文獻說話의 研究」(螢雪出版社，1981)
- 秦聖麒；“제주도의 뱀信仰”，[韓國文化人類學] 10 (한국문화인류학회，1980)
- 崔吉域；「韓國巫俗의 研究」(亞細亞文化社，1978)
- 卓明煥；“濟州蛇神 信仰에 對한 小考”，[韓國文化人類學] 10 (한국문화인류학회，1980)
- 玄吉彦；「제주도의 창수설화」(弘盛社，1981)
- 玄容駿；“濟州島 堂神話考”，[제주도] 3 (제주도，1962)
- ；“濟州島 堂神話考 - 松堂系神話를 中心으로 -”，[제주도] 3 (제주도，1961)
- ；“「본풀이」의 形成과 內容”，[韓國言語文學] 창간호 (한국언어학회，1963)
- ；“堂神話의 Motif 와 基本形式”，[國文學報] 2 (제주大 국어국문학회，1964)
- ；“濟州島 무당굿놀이 概觀”，[文化財] 2 (文化財管理局，1966)
- ；“堂神話의 內容構成과 背景民俗信仰”，[濟大學報] 9 (濟大總学生会，1967)

- ; “成巫過程 - 濟州島 巫俗의 比較研究 II - ”, 『国文学報』 5  
 ( 濟州大 국어국문학회, 1973)
- ; “濟州島巫俗儀禮研究” ( 濟州大 論文集 7, 1976)
- ; “濟州島 巫神의 形成”, 『耽羅文化』 창간호 ( 濟州大 耽羅文化  
 研究所, 1982)
- A.R.Radcliff-Brown ; 『 Structure and Function in primitive  
 Society 』 (London: Cohen and west,  
 1967)
- Tomas A Sebeck ; 『 Myth, a symposium』 (Bloomington and  
 London, 1955)
- M.Eliade ; 『 宗教形態論』 ( 李恩奉 訳, 螢雪出版社, 1979)
- Stith Thompson ; 『 The Folktale』 ( New york, 1946)
- T.P.Coffin ; 『 American Folklore』 ( Voice of American  
 Forum Lectures, 1968)
- 園田稔 ; “祭 - 表象の構造 - ”, 『日本人の宗教』 ( 日本 : 佼成出版社, 昭和  
 十七)

< ABSTRACT >

A Study of "Maiden

Dang-Bonpuri" in Jeju-do

By Kwang Min Koh

In almost all of villages in Jeju-do, villagers have believed in the village tutelary deity named "Dangshin", and know that there is the account of the deity's life called "Bonpuri", an oral literature which has been handed down by shamans. Six villages in this island have been deified the soul of dead maids as "Dangshin", and the tries to name this type of "Dang" as "Maiden Dang".

The deities of six "Maiden Dang" must be concrete figures who lived and died in Jeju island, in that they have definite surnames, even their tombs were installed(Hyun-ci Ilwoldang or Tosan Yodredang), and the figure who trifled with a maiden and made her die a mistreated death were confirmed.

The writer limited the scope of the study to this, and on the basis of different versions on "Maiden Dang-Bonpuri" (1)analyzed the horizontal order structure of time of time, (2)examined the formative factor of "Bonpuri" from the popular viewpoint with analyzed result, and (3) studied representative meaning of the ritual.

(1)The common horizontal constructions of "Maiden Dang-Bonpuri", though each text represent different concrete situation, are the represent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with which a maid was confronted (part of conditional representation), resentful death due

to noescape from the faced situation (resentful death part), an appeal for redressing a grievance through craft, and being seated as a "Dangshin" offered sacrifice from believers. The conditions with which maids are difficult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s such as daughters of lower officials, Japanese invasion, bad geographical condition of Jeju-do, the enmity between social class. They died a resentful death with no escape from their impending situation, at last gave believers their cunning. The believers worshiped the maiden's spirit as "Dangshin", due to recognizing the craft as the nature of the revengful spirit.

(2) The formative factors of "Maiden Dang" and "Bonpuri"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the historical sense of defeat of "Dangshin" and Jeju women - that is, Japanese invasion, the presentation of local products to the king, class hatred, sacrifice by geographical ban conditions, etc.. This means the homogeneity of situations with which "Dangshin" and believers, and make up the sympathy. The formative factors of "Maiden Dang" and "Bonpuri", therefore, are the course in which believers have satisfied their spite as well as the grudge of "Dangshin".

(3) The rituals for "Maiden Dangshin", though the scale and typ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Dangshin", is the deed of escape from believers confronted dissension, venting a spite of vindictive spirit, that is, a dramatic shape of having a grudge and being avenged. Although this deed was not embodied in the rituals for all of "Maiden Dangshin", it is concretized in "Bangwoolpum" of the ritual for the Tosan Yodre-dang Deity. There, seven unidentified knots (Bangwool) is a symbolic and homopathic magic deed as the shape of the resentment.

부 록



## 일 러 두 기

1. 堂의 개요는 논문 내용을 참고했다.
2. 각 자료마다 제보자를 설명하고, 제공한 자료 목록을 적었다.
3. 노래로 채록된 본풀이는 음보에 맞춰 적고, 이야기로 채록된 본풀이는 띄어 썼다.
4. 자료마다 \*를 앞뒤에 표시하고, 조사 상황을 설명하여 현장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5. 자료 본문은 방언 그대로 표기하고, 어려운 말은 주를 달아 설명하며, 간단한 주는 ( )안에 넣었다.
6. 채록 당시 분위기 설명은 [ ]안에 기록했다.
7. 채록한 날과 장소는 자료 번호 뒤에 표시했다.
8. '처녀당 본풀이'들 중 필자에 의해서 새로 채록된 것만 실었다.

## I. 불랫낭할망당 (北濟州郡 朝天面 新興里 소재)

### ○ 제보자 (김씨 할머니; 여·86) 1

이웃마을인 朝天里에서 태어나 20세에 이 마을로 시집왔다. 두 아들이 있지만, 현재는 할아버지와 둘이서만 생활하고 있다.

동네 애기들이 아프면, 이 堂에 가서 祭를 지내는데, 그 祭를 司祭하는 '삼싱할망'이기도 하여, <불랫낭할망> 본풀이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자가 제보자를 찾아갔을 때, 집에서는 <불랫낭할망당>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고, 堂에 가서는 노래로 들려줬다.

제공한 자료: 1~2.

### ○ 제보자 (정주병; 남·72) 2

이웃마을인 朝天里에서 태어나 아버님을 따라다니며 巫業을 익혔다. 현재 조천리에 거주하면서도 新興里에 와서 '큰굿'을 치를 뿐 아니라, 30년 전에는 신흥리 本鄉堂에 司祭를 전담한 메인심방이기도 해서, <불랫낭할망당> 來歷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실정이다.

제공한 자료: 3.

### 자료 1 (1981.12.5., 제보자의 집)

\* 조사자가 찾아가니 어색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난 후, 어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조사자의 할머니가 살아 온 이야기부터 시작하고는, 제보자의 살아 온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게 유도했다. 어색한 분위기는 좀 해소되고, 조사자가 <불랫낭할망당>의 내력담을 여쭙니………… \*

불쌍헌 당이주! [ 조사자: 예. ]

저 열다섯난 처녀가 포렐(홀파래틀) 메었주, 이더 춤포래, 국끓  
여 먹는 포래. [ 조사자: 예. ]

그 포렐 메엄시난(메고 있더니), 일본 낚배(낚싯배) 물 시끄  
레 오란 보난<sup>1)</sup>(와서 보니), 고운 처녀가 포렐 메엄시난,

“무사(왜) 포렐 메엄디(메고 있느냐)?” 헌 게, 온 게,<sup>2)</sup> 그 당  
(堂).

경허난(그러니), 그덜 오란 처녀가 엮더지난(엮어져서 죽으니),  
이제랑 이 가는 선(船), 오는 선 받아먹영 제승(저승)을 가렌  
(가라고).

경허난, 어멍·아방은 물어주고,<sup>3)</sup> 구신은, ……….

이 밋을, 이더 살던 사름도 된 오라근(모두 와서) 대접하는걸<sup>4)</sup>  
(대접하지).

[ 조사자: 아, 기기 어멍·아방은 누게네 집안인고마씀? ]

몰라. 우리도 이겨 늑신네신더(어른들로부터) 들은 말이주게.

하르방은 박애(朴峯), 박씨 애기주, 침 불쌍헌 아이주게, 열 다  
섯에 죽은 아이난.

[ 조사자: 아-. ]

注 1) 이사무소 뒷쪽에 ‘큰물’이라고 일컫는 生水가 있는데, 일본 낚싯배  
들이 이 마을 浦口에 와서 배를 세워 놓고, 물지개로 이 물을 길어  
갔다고 전함.

2) 현재 위치한 堂으로 뛰어온 것임.

3) 박씨 처녀의 부모들이 겁탈당하고 죽은 딸을 물어 주고.

4)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다른 마을로 이주해 사는 사람들도 祭日이면.

자료 2 (1981.12.5., 불렛낭할망당에서)

\* ‘자료 1’을 듣고 난 후, 제보자는 조사자의 요구에 따라  
堂으로 와서는……. \*

[ 조사자 : 여기 출령 와그녕아 (차리고 와서) 제 (祭) 지낼 때  
ㄹ치 (때처럼) 허여 줘서 (해 주시죠).<sup>1)</sup>

제보자 : 못허커라 !

조사자 : 날 (祭日)은 언제고……. 안되카마씀 (안되겠습니까) ? ]

날은어느날

생기복덕<sup>2)</sup>

돈딱할마님신디<sup>3)</sup>

출련온건<sup>4)</sup>

아니 아전

박씨할마님

춤꼭레

일본낙배

오갯어떤아가씨가

홀목심젠 흥난<sup>7)</sup>

오시온게

돌은어느돌

맞인날에

출련오라수다

밥하고채소베끼

오라수다<sup>5)</sup>

열다섯에

큰개에서메엄시난

물시끄레들어오랴단

꼭레메엄시난<sup>6)</sup>

천장만장

注 1) 본풀이름.

2) 生氣福德日.

3) 모두 堂神에게.

4) 차리고 온 것은.

5) 못갓고 왔습니다.

6) 그만 어떤 아가씨가 홉파래를 메고 있더니.

7) 손목을 잡으려고 하니.

볼랫낭알로 8)

동펜은금석

급수황하늘을

이마을에

다 호 10)

허물을주민

날보양돌박양

문딱박실박실

[ 제보자 : 원 말맹 ( 내용 ) 은 그거주게.

조사자 : 예 - . ]

엿더지난

서펜은황석

초질해영 9)

어른이고아이고

본지그든

오만 11)

썰어본다 12)



注 8) 볼래나무 밑으로. 현재 堂 위치임.

9) 堂을 차지했다는 뜻(?).

10) 모두에게.

11) 挾日해서 오면.

12) 모두 ( 허물을 ) 쓸어 버린다.

자료 3 (1981. 12. 19., 제보자네 집)

\* 조사자가 찾아가 보니, 제보자는 낮잠자고 있었다. 공손히 인사하고 난 후, 본풀이를 요구하니…………. \*

박씨즈순	웨즈순이
웨하르방침이 1)	왔다서
개곷해변으로 2)	개보말추서먹으레갔단 3)
웨놈이오란 4)	검은웃입고오란
노래어서 5)	밋볼래낭아래오란
줍미쳐	죽었십니다
죽으난	하르바님이
“넬라근	가는선오는선에
이제맹기는다	펜안헝게
해서물란 6)	
상케중케	바치거들랑 7)
얼어먹기	마련헝고
일만줍수안티	얼어먹엉 8)
펜안헝게시리헝곡	미울펜안헝게헝곡
집안펜안헝게하라” 헝연	
좌정훈	당이우다

註 1) 외할아버님네 집에.

2) ‘海邊으로’의 뜻.

3) ‘보말’을 주워먹으러 갔다가, ‘보말’은 작은 고동.

4) 왜놈이 와서.

5) (박씨 처녀가) 놀래서.

6) 지금(배들이) 다니는 데 무사히(運行토록) 해서는.

7) ‘堂神(곧 박씨 처녀)에게 祭物을 바치거든’의 뜻.

8) 많은 해녀들로부터 얼어먹어서.

## II. 현씨일월당 (南濟州郡 城山邑 新川里 소재)

제보자 (신명숙; 여·66) 1

제보자의 집안은 여럿이 巫業에 종사해 온 세습무 집안이다. 41세에야 무업을 시작했는데, 이 마을의 神堂들을 지켜오던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이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해녀작업을 하며 살아오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마을의 신당을 지키는 심방이 없어서 대신 司祭를 담당하게 되면서부터 무업을 계승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그의 자녀들을 제보자에게 무업을 그만 두기를 바라지만, 자신이 堂을 지키지 않으면 神의 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전한다.

제공한 자료: 1~2.

자료 1 (1981.11.22., 제보자의 집)

\* 조사자가 <현씨일월당> 본풀이를 듣기 위하여 땅거미가 질 구렁에 찾아갔을 때, 손자와 둘이서만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쉽게 본풀이를 노래해 줬다. 人工條件에서 채록된 본풀이인 셈이다.

제보자는 본풀이를 노래한 후에 눈물을 흘렸다. 자신은 본풀이의 來歷이 슬프기 때문에 이 본풀이를 읊조릴 때마다 눈물이 난단다.\*

아버님은	선씨웨다
어머님은	고씨웨다 1)
그몸으로	무위오애 2)
애중애기	

注 1) 堂神의 아버지는 玄氏요, 어머니는 高氏요.

2) 부모없이 외로운 몸이라는 뜻.

혼세설에 3)  
 혼일곱설나난  
 열다섯에  
 어딜가리요 6)  
 신씨상단곶 7)  
 대영평을  
 금시악도 9)  
 홍포관띠 10)  
 아자 탄복  
 울엄시난 12)  
 상오라방  
 웨 탄복을  
 "선칩이서  
 대영평을  
 금시악도  
 섭수쾌지  
 탄복홉네다"  
 "나누이야

죽억살악 4)  
 돌아탄성  
 대천접저올리젠호난 5)  
 천만기도  
 흐렌호난 8)  
 없어지고  
 없어지난  
 사탄복  
 "설운누이야  
 그리호느냐?"  
 천만기도  
 해여드렌호난 13)  
 없어지고  
 없어지난  
 내일날은



注 4) 죽었다 살았다가.

5) '큰곳을 치를려니'의 뜻.

6) '巫具 내지는 巫服이 없어서 어데 가서 빌러올거나' 한탄하는 뜻.

7) 玄氏 상단곶에. 「단곶」은 信仰氏族.

8) '대영평(鉦)'을 울려 달라고 하니. 곧 곳을 치뤄 달라니.

9) 巫具의 하나.

10) 紅袍冠帶.

11) 앉아서 탄복하고, 서서 탄복하며 울고 있더니.

12) 큰오빠가 하는 말이.

13) 곳을 치르어 달라고 해도.

각서군문진상	가고오다근 14)
금시악도	허영오마 15)
섭수괘지	허영오마 "
나고갈때	고춧당으로 16)
관바당을	지낭가난 17)
모진광풍	불어가난
선씨애기	상오라방가는거
영어시난 18)	연두이아잔보난 19)
불쌍하고	가련헌신
상오라방	간간무종이
해염구나 20)	
아바님도	무위오애
어머님도	무위오애
나는살아	뵈을허려
연두알러래	떨어지영
목을격편	죽어가난
선씨상단결	밤인금정질
낮인옥정질 21)	
어느누계	술훈잔광



注 14) 서울에 國馬進上을 다녀오다가.

15) 하고 오마.

16) 이 마을에 위치한 고처浦口, 浦口 바로 옆에는 <고춧堂>이 있다.

17) 물결이 잔잔하여 관관한 바다를 지나가더니.

18) 영 (오빠의) 모습이 없으니.

19) 烟台(봉수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니.

20) (물에 빠져) 감감 무소식이 되는구나.

21) 玄氏 처녀의 怨魂의 玄氏一家에 밤낮으로 搖鈴(천안낙파금정 옥술발?) 소리를 울리며 원통하게 죽었음을 알리는 神意.

감취 혼잔  
 기미년육섯달  
 망명도저  
 불러대연 23)  
 솔썩구렁  
 배무구덩  
 서이세끼  
 신남미뻬  
 선씨상단궐  
 김씨하단궐  
 똥조순에  
 초 9 드레  
 수무 9 드레 26)

아니주나네 22)  
 열나홀날  
 김씨선생  
 배단구렁  
 무덤 학교 24)  
 엉담둘러 25)  
 고씨중단궐  
 아덜조순  
 상구월덜나난  
 열 9 드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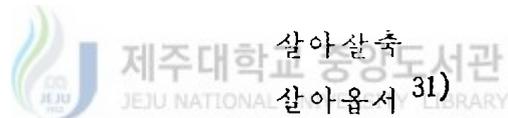
주야주야  
 주야주야  
 주야주야  
 이른 9 뚝  
 설혼 9 뚝  
 옛날에  
 모양으로



당주취야  
 몸주취야  
 간주취야  
 고부살자  
 집에살자  
 콩이아덜삼형제 27)

注 22) 어느 누구도 怨靈에게 매접하지 않았다는 뜻.  
 23) 己未年 설달 열 나홀날에 죽은 김씨 선생(심방)을 불러다가.  
 24) 怨靈과 그의 부모 무덤까지 셋을 마련하고.  
 25) 神木 밑에 담을 두르고.  
 26) 음력 9월 8, 18, 28일은 이 堂의 祭日.  
 27) 巫祖神인 초공의 아들 삼형제.

팽케낭광	유즈낭베영 28)
신두집을지영 29)	이거원전칭
팔즈굿던	조상님아
스주굿던	글이라전득허멍
활이라고	전득협네까 30)
팔즈굿인	즈순덜도
조상에덕턱으로	어쭈웨삼늑거리
서강베포당	팽케낭광
유즈낭비영	벌목해영
당주집을짓던	조상님도
초우드레	‘본맹뒤’도
살아웁서	
여레드레	‘신맹뒤’도
살아웁서	
수무우드레	살아살쭈
‘삼맹뒤’도	살아웁서 31)



[ 제보자 : 이거 맥이주 ( 뿐이지 ). ]

조사자 : 예.

제보자 : 예잇 ! 씨발놈 때문에 눈물만 흘려져라.

일동 : 하하하하. ]

注 28 ) 팽나무와 유자나무를 베어다가.

29) 巫神祖인 초공의 아들 삼형제가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를 살려다가, 그들의 어머니를 살린 집을 짓던.

30) 이 巫業이 꺾어 좋아서 전승되니까하는 嘆句.

31) 生日이 9월 초8일인 ‘본맹뒤’, 18일인 ‘신맹뒤’, 28일인 ‘삼맹뒤’님들도 ‘오늘 玄氏日月神을 위한 祭日에 살어나 오십사’ 하고 비는 뜻.

자료 2 (1981. 12. 13., 현씨일월당에서, )

\* 소극적 제의인 ‘앉인제’로 행해지는 堂祭日 (음 9월 18일)에 직접 참여하여 채록한 것이다. ‘자료 1’이 人工條件에서 채록된 것이라면, 이것은 自然條件에서 채록된 것이다.

40명 정도의 아낙네들은 각자 준비하고 온 제물을 제단에 올리고, 제단을 중심으로 빙 둘러 앉았는데, 심방은 神像 (生木에 고운 한복을 입힌)을 향하여 큰절 세 번 올리고 나서는, 巫具라곤 단지 요령만 흔들면서……… \*

< 날과 국섭김 > 1)

공서는공서외다.	가서는공서
공서는가서 2)	
목은보난	목은쉬어브난 3)
신유년은	석가여래
서순공서	아뤄기는
저는정광 4)	절수웨다 5)
날은보난	어느날고
돌은보난	어느돌고
올금년은	해는보난
신유년은	윤상들어 6)

注 1) 祭를 올리는 날짜와 장소의 설명을 노래하는 대목.

2) 一說에 의하면, ‘降神告書’의 와전이라는 말도 있으나, ‘본풀이’나 ‘비념’ 등을 노래할 때 시작하는 관용어구인데, 의미는 미상임.

3) 제보자의 목이 쉬었다는 말.

4) 예전에나 지금에나.

5) 절 (寺刹) 이고 堂입니다.

6) 윤달이 들어. 辛酉年(1981)에는 윤달이 안 끼었는데, 제보자의 실수임.

열두절은	이레오라블라 7)
돌은보난	오동깃돌
날론보난	열유드렛날 8)
누게 받은	이공서명
누게 받은	어느결주순이엔
인스말씀	홀수있습네까
이마울은	우리남군
성산면은	신천리고 9)
알녘짜은	진진골목 10)

<에명올림> 11)

현씨주순	설혼아훙
최씨주순	설혼다섯
받은공소	
현씨주순	설혼유섯
양가족나신애기 12)	열유돌설
받은공소	
밥이없어	이공소도
아니웨다	



注 7) 40여명의 아낙네들이 제단에 ‘메’한 그릇씩과 乾魚 하나씩 올렸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제단에 가서 堂神에게 잔을 드릴려고 애쓰며 심방의 앞을 가리자, ‘비켜라’는 뜻으로 하는 말.

8) 祭日인 오늘 18일.

9) 우리 南濟州郡 城山面은 新川里고.

10) 아래로는 길고 긴 골목. 堂의 위치를 告하는 사설.

11) 堂神에게 대표되는 신앙민들의 성씨와 연령을 堂神에게 告하는 祭次. 원래는 한 사람씩 개별로 하는데, 약식으로 고하고 있음.

12) 양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뜻.

옷이 없어	이공소도
아니웨다	
밥광옷은	빌어서도
밤이 나고	
아자서도 <sup>13)</sup>	옷이웨다
일시천금	우리인간
아닙네까	(청취불능)
돈과돈은	없다가도
있는것고	
있다가도	엇는법이난 <sup>14)</sup>
우리인간은	토란앞에
이슬이라곤 <sup>15)</sup>	
호번어차흐면 <sup>16)</sup>	떨어지면
열손가락	가로들러
호번가민	못오는거 <sup>17)</sup>
우리인생	아닙네까
이즈순털	마흔오둑
상단궐은	설흔오둑
중단궐은	수물오둑
하단궐은	계민수완
만민단궐 <sup>18)</sup>	

注 13) 앓아서도 옷입니다. 밥과 돈은 인간의 목숨에 비하면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으로 불리워진 내용.

14) 없는 법이니.

15) 이슬과 같아서.

16) 한번 '아차' (실수하게) 되면.

17) 한번 (저승에) 가면 못오는 게.

18) 신앙민들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

상어부중어부  
상좁수야  
중좁수야

상어부야  
중좁수야  
하좁수야 19)

<본풀이>

연두이아자근 20)

아바님은

선씨웨다

어머님은

고씨웨다

그몸으로

무위오애

여즈애기

혼세살나난 21)

삼천군뺑 22)

혼일 꼽설엔

죽었다돌아탄성

열다섯설

대천접을

저울리젠 혼난 23)

열두금시악도엇고

사무관되

섬수쾌지

없어지난 24)

상오라방은

누이탄복

허여가난

“서룬동기간아

서울이라

상납가근

진상갔다 25)

돌아올때는

섬수쾌지

허영오마

注 19) 해녀의 기능에 따라 位階를 두어 上, 中, 下 潛水라고 부른다.

20) 堂神이 生前에 烟台(봉수대)에 앉아서.

21) 魂三歲 나니.

22) 갓가지 질병.

23) 큰곳을 치를러니.

24) ‘여러 巫具와 巫服들이 없으므로’의 뜻.

25) 上納進上갔다가.

금장귀살장귀  
 영해여근  
 나고가난 26)  
 밤이뉘난  
 펜안바당 27)  
 강씨할망  
 불러나가난  
 나고가는  
 간간무종이  
 선씨애기  
 바래여보난 29)  
 상오라방  
 간간무종이  
 ‘아바님도  
 어머님도  
 나는살아  
 연두알러레 30)  
 목을겨편  
 밤인금정질  
 옥정지영 31)  
 선씨상단궐에

허영오마\*  
 고춧당으로  
  
 금정지영  
 박씨화장  
 선주사공 28)  
 펜안바당  
 금정지영  
 허였구나  
 연두의아잔  
  
 오누이뉘똥  
 허였더라  
 무위오애  
 무위오애  
 뭇을호려?  
 떨어지연  
 죽어가난애  
 나는나진낭  
  
 아기에머리메탁 32)



- 注 26) 이렇게 말해 두고 (이 마을 해안에 위치한 고쳐浦口를) 빠져나가니.  
 27) 잔잔한 바다에.  
 28) 玄氏 처녀의 오빠가 서울에 國馬進上갈 때 同船한 사람들 .  
 29) 현씨 처녀가 烟臺에 앉아서 (오빠의 모습을) 바라봤더니.  
 30) 烟臺 (봉수대) 밑으로.  
 31) 현씨 애기 (처녀) 의 怨靈이 玄氏一家에 밤낮으로 搖鈴소리를 울리며 伸怨을 알리는 소리 (鬼聲?).  
 32) 冤魂이 玄氏一家의 한 애기에게 憑依했다는 뜻.

우으로역기허영 33)	알로사는디엔
불러주난	
기미년육섯덜	열나홀날
망명도쥬	김씨선생
불러다가 34)	
“베다끄라	술싱그라
신남싱그라	영담들르라”
제전들렁 35)	서이세끼
무덤을호여웠	
어느즈순사	파아간디 36)
서룬어멍 37)	9.든하나나이엔
만민단궐애	경하다근 38)
신이아이 39)	(청취불능)
마흔하나나나네	유래전득
호였수다 40)	
만대유전호영	



注 33) 怨靈에 憑接한 애기가 입으로는 口吐하면서.

34) 본 본풀이 ‘자료 1’의 注 23) 참조.

35) 김씨 심방이 玄氏一家에 神木을 심고, 담을 두르고, 제단을 만들어서 堂을 설치하라고 命하는 뜻.

36) 현재 <현씨일월당>이 위치한 바로 뒷밭에 堂神과 堂神의 부모 무덤까지 셋이 있었는데, 제보자의 나이 43세에 도굴당했다는 말. 제보자에 따르면, 도굴당하기 전에는 八字가 좋지 못한 神의 무덤이므로, 다른 묘들의 벌초는 음력 8월에 행하지만 堂神묘의 벌초는 9월에만 해 왔었다고 함.

37) (제보자의) 서러운 어머니님.

38) 그렇게 (巫業을) 하시다가.

39) 神의 아이. 곧 제보자를 두고 하는 말.

40) 제보자의 나이 41세에 어머니로부터 巫業을 전수받았다는 뜻.

벌초호레오란보난<sup>41)</sup>

어명사과간디<sup>42)</sup>

예~ 언담입네다

채판초판<sup>43)</sup>

아방사과간디

봉분하나베끼엇십니다

예~

신가슴열립네다 예~

[이후, 각 단골들마다 차례로 액운을 점치는 ‘산(算·占)받음’ 이 계속됨.

원래는 ‘산받음’이 끝나면 送神하는 ‘도진祭’가 있게 되나, 오늘 날씨가 매우 추워서 생략됨.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注 41) 제보자의 나이 43세에 堂神의 무덤에 벌초하러 와서 보니.

42) 堂神 아버지의 (무덤을) 헤쳤는지, 어머니의 (무덤을) 파  
가 버렸는지.

43) 이 판 저 판.